

SANGMYUNG UNIVERSITY



2024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교수학습혁신센터

(구: 교수학습개발센터)





## CONTENTS

#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1 대상\_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  
행정학부 23학번 권세아\_1

2 최우수상\_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웹프로그래밍 수강 후기  
빅데이터융합전공 22학번 신지우\_13

3 최우수상\_이론과 실전의 시너지: 알고리즘  
A+와 교내 프로그래밍 대회 1등의 기록  
컴퓨터과학전공 22학번 지재현\_23

4 우수상\_교직실무 과목을 통한  
나의 교직생활 미래 설계  
국어교육과 22학번 김지연\_31

5 우수상\_네가 찾던 진짜 '교양'  
경영학부 22학번 김예찬\_39

6 장려상\_즐겁게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  
무용예술전공 24학번 황경민\_46

7 장려상\_헌법을 알고 싶다면 기본권과  
통치구조  
행정학부 22학번 김나현\_56

8 장려상\_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드는 수업  
영어교육과 21학번 이현승\_62





## CONTENTS

# 2.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1

대상\_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는  
학습전략 5가지 Step  
생명공학전공 21학번 박여진\_69

2

최우수상\_ 비효율적인 공부, 시간은 없는데  
곧 시험!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교육학과 23학번 안지혜\_77

3

최우수상\_ 1년동안 4.5, 그 뒤에 숨은  
나만의 학습법  
경영학부 23학번 김서영\_88

4

우수상\_ 오름피날레를 위한 학기별  
추천 활동!  
영어교육과 21학번 이현승\_96

5

우수상\_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A+와 SQLD 자격증 달성기  
컴퓨터과학전공 22학번 지재현\_98

6

장려상\_ 학교생활 200% 즐기고,  
상까지 받는 방법  
한일문화콘텐츠전공 22학번 양성민\_104

7

장려상\_ 4년의 망설임을 넘어,  
성장의 기회를 잡다.  
영어교육과 21학번 남정민\_106

8

장려상\_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역사콘텐츠전공 23학번 안유진\_113



##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

행정학부 23학번 권세아

상명대학교의 우수강의로 2024년 2학기에 수강한 최병권 교수님의 <조직행동론>을 소개합니다.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조직행동론> 강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영학부 수업을 처음 듣는다면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직 속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강의로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어도 수강할 수 있으며 경영학의 기초를 흥미롭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과 조직 관리 방법을 배우며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1. 강의 수강 이유

제가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학기에 최병권 교수님의 <경영학원론>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업은 경영학부의 기초를 배우는 첫 번째 강의였으며, 교수님께서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경영학부를 제2전공으로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소위 ‘갓(God) 병권 교수님’ 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많은 경영학부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수업이 재미있고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챙겨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조직행동론>은 5점 만점 중 4.68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에 매우 만족하였고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영학부에서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함입니다. 상명대학교의 다전공 학점 이수 기준은 130학점 중 36학점 이상입니다. 2023학년도 입학 기준으로 경영학부의 졸업학점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영학부의 전공은 Accounting (회계), <조직행동론>을 포함한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Marketing (마케팅),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생산관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정보 시스템) 총 6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부 기초 과목인 ‘경영학원론’과 전공 필수 과목인 ‘마케팅’, ‘인적자원관리’를 수강했으며,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소비자행동’을 수강했습니다.

입학연도	학부(과) 기초 및 전공					부전공
	다전공					
	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심화	계	
~2013	6	18	21	-	45	21
2014	6	18	21	-	45	
2015	-	18	27	-	45	
2016	-	-	45	-	45	
2017	-	-	36	-	36	
2018	-	-	36	-	36	
2019	-	-	36	-	36	
2020	-	-	36	-	36	
2021	-	-	36	-	36	
2022	-	-	36	-	36	
2023	-	-	45	-	45	
2024	-	-	45	-	45	

그림 1: 경영학부 다전공의 졸업 이수 학점 (출처: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인간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요인을 탐구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관련 도서나 영상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여러 팀 프로젝트와 단체 생활을 시작하며 갈등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에서 배운 다양한 원리들을 활용하여 조직 관리나 사회생활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방식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심리학적 지식이 실제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며 저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 저의 관심 분야였던 <조직행동론>을 주저없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2. 강의 정보 및 구성

수업 첫날, OT에서 배운 <조직행동론>의 강의 목표는 ‘조직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리더는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행동론은 궁극적으로 경영의 핵심인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강의는 조직 내 행동의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경영학부의 전공 선택 과목이며, 수강 대상은 다전공을 포함한 경영학부 2학년입니다. 분반은 총 3개의 분반으로 나뉩니다. 본 과목에서는 조직 내의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조직 행동 및 인사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인사관리란 조직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성원이 높은 성과를 내고 그들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강의의 구성은 학습자료, 참고 자료, 그리고 학생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자료는 교수님께서 e-Campus에 올려주시지만 저작권 문제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직접 캡처하거나 필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는 인터넷 기사, 연구 결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학생 활동은 링크를 통해 심리 검사나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교재는 아래 <표 1>에 제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양한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 자료가 제공되기에 주교재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교재
최진남, 성선영. (2021) 스마트조직행동, 생능.
Robbins, SP.& Judge, TA(저), 김양균 외 4인(옮김). (2021) 조직행동론(18판), 한티에듀.
박상언 정범구 김주엽 송계충. (2020) 조직행위론(5판), 경문사.
백기복 (2021)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John R Schermerhom(저)/ 조운형, 정진철 등(역), (2020) 조직행동론(13판) 한경사.
Christopher P.Neck Jeffrey D. Houghton, & Emma L Murray(저), 서재현 설현도 송상호 이호선 (공역), (2018),조직행동론, 한경사.

표 1: <조직행동론>의 부교재 자료 (출처: 상명대학교 e-Campus <조직행동론> 강의 계획서)

<조직행동론>의 평가 방식은 출석 3%, 과제 12%, 중간고사 42.5%, 기말고사 42.5%로 구성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반영 비율이 각각 42.5%로 높고 두 시험의 중요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총 3번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에 따라 자료조사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량은 1페이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개인 프로젝트이기에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는 수업과 연계된 심화 내용으로 구성되었기에 저는 과제를 통해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또한 사례 선택 과정에서 수업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생각하며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직행동론 3 분반, 행정학부

1. MZ 세대의 가치  
 개인주의, MZ 세대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다. 개인의 가치관 및 관심,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며 단편의 목표 달성 보다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다. 또한 부의 향상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흥미의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디지털 친화적 문화에 따른 MZ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뉴미디어 사용에 능숙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Z 세대는 156 점, Y 세대는 154 점, X 세대는 148 점으로 X 세대의 경우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150점을 기록했다.  
 다양한 MZ 세대는 X 세대에 비해 10년 성장할 때 20년간의 약 1.5배 정도 성장한다. 특히 20대 초반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률도 높았다. 소비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관심과 선호도를 드러내며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소비한다.

2. 기업세대와 다른 모습에 대한 MZ 세대의 태도와 행동  
 개인의 시간과 휴식을 중요시하며 '일보다 삶'에 높은 가치를 두는 MZ 세대 직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성과 외에 대한 직감적 공명(리얼리티)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 퇴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48.2%가 MZ 세대의 1년 이내 조기 퇴사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좋은 업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1위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 다른 세대보다 MZ 세대의 비율이 높다. 이는 MZ 세대의 개인주의와 이익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MZ 세대는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친화나 다만 커뮤니케이션을 꺼리지만 예전처럼 같은 SNS를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MZ 세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공명(리얼리티)에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MZ 세대는 갑질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조직을 개혁하여 다 자원을 투자하고 투명한 공정한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성과의 직무만족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행동론 3 분반, 행정학부

1. MZ 세대의 가치  
 개인주의, MZ 세대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다. 개인의 가치관 및 관심,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며 단편의 목표 달성 보다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다. 또한 부의 향상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흥미의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디지털 친화적 문화에 따른 MZ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뉴미디어 사용에 능숙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Z 세대는 156 점, Y 세대는 154 점, X 세대는 148 점으로 X 세대의 경우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150점을 기록했다.  
 다양한 MZ 세대는 X 세대에 비해 10년 성장할 때 20년간의 약 1.5배 정도 성장한다. 특히 20대 초반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률도 높았다. 소비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관심과 선호도를 드러내며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소비한다.

2. 기업세대와 다른 모습에 대한 MZ 세대의 태도와 행동  
 개인의 시간과 휴식을 중요시하며 '일보다 삶'에 높은 가치를 두는 MZ 세대 직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성과 외에 대한 직감적 공명(리얼리티)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 퇴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48.2%가 MZ 세대의 1년 이내 조기 퇴사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좋은 업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1위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 다른 세대보다 MZ 세대의 비율이 높다. 이는 MZ 세대의 개인주의와 이익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MZ 세대는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친화나 다만 커뮤니케이션을 꺼리지만 예전처럼 같은 SNS를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MZ 세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공명(리얼리티)에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MZ 세대는 갑질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조직을 개혁하여 다 자원을 투자하고 투명한 공정한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성과의 직무만족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행동론 3 분반, 행정학부

1. MZ 세대의 가치  
 개인주의, MZ 세대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다. 개인의 가치관 및 관심,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며 단편의 목표 달성 보다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다. 또한 부의 향상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흥미의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디지털 친화적 문화에 따른 MZ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뉴미디어 사용에 능숙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Z 세대는 156 점, Y 세대는 154 점, X 세대는 148 점으로 X 세대의 경우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150점을 기록했다.  
 다양한 MZ 세대는 X 세대에 비해 10년 성장할 때 20년간의 약 1.5배 정도 성장한다. 특히 20대 초반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률도 높았다. 소비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관심과 선호도를 드러내며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소비한다.

2. 기업세대와 다른 모습에 대한 MZ 세대의 태도와 행동  
 개인의 시간과 휴식을 중요시하며 '일보다 삶'에 높은 가치를 두는 MZ 세대 직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성과 외에 대한 직감적 공명(리얼리티)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 퇴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48.2%가 MZ 세대의 1년 이내 조기 퇴사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좋은 업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1위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 다른 세대보다 MZ 세대의 비율이 높다. 이는 MZ 세대의 개인주의와 이익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MZ 세대는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친화나 다만 커뮤니케이션을 꺼리지만 예전처럼 같은 SNS를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MZ 세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와 공명(리얼리티)에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MZ 세대는 갑질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조직을 개혁하여 다 자원을 투자하고 투명한 공정한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성과의 직무만족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 <조직행동론>에서 제출한 과제

### 3. 강의 진행 방식 및 주요 내용

주차 별 강의 내용은 1-8장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2>에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날짜	수업 내용	비고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chapter. 1 조직행동이란?	
2주차	chapter. 2-1 다양성	chapter. 2 관련 과제 1
3주차	chapter. 3 태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 / 상호작용 Test
4주차	chapter. 2-2 개인차 / chapter. 4-1 성격, 특성, 가치	
5주차	chapter. 4-2 성격, 특성, 가치 / chapter. 5-1 정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 / 상호작용 Test
6주차	chapter. 4-3 성격, 특성, 가치 / chapter. 5-2 지각과 오류	chapter. 4 관련 과제 2
7주차	chapter. 5-3 의사결정 / chapter. 5-3 의사결정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chapter. 6 리더십	온라인 강의로 진행
10주차	chapter. 7-1 동기부여	
11주차	chapter. 7-2 동기부여	
12주차	chapter. 7-3 동기부여	
13주차	chapter. 8-1 집단행동	
14주차	chapter. 8-2 집단행동	chapter. 8 관련 과제 3
15주차	기말고사	

표 2: <조직행동론>의 주차별 강의 내용 (출처: 상명대학교 e-Campus <조직행동론> 강의 계획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수님은 수업 중 자주 질문을 던지시거나 의견을 물으시며 학생이 수업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배우는 과목인 만큼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수업에서는 주로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매번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업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수님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기 위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하는 수업 덕분에 저와 의견이 다른 학생들의 대답도 들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이 답을 하면 그 이유까지 물으시며 더욱 심층적인 수업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예시로 ‘지각’ 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어 이름의 주식 회사명을 화면에 10초간 띄운 후, 어떤 기업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CAT’ 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단어가 외우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신용을 할 때, 회사명의 앞 글자가 a, b, c처럼 알파벳의 앞에 있는 경우에 더 많이 기억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이 더욱 재미있었고 내용을 깊이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 자료로 기업과 사회의 사례나 사회 실험을 활용하여 조직 행동을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인터넷 기사와 영상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자신감 오류’ 에 관해 맥도날드의 ‘맥피자’ 의 실패 사례 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성공을 거둔 경험에 기반해 피자 사업도 잘될 것이라고 과대평가했으나 이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착화 오류’ 의 사례로 캠벨 수프의 판매 실험을 소개하셨습니다. 수프 할인 판매 시 “1인당 12개 제한,” “1인당 4개 제한,” 그리고 제한 없이 판매한 세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조건은 “1인당 12개 제한”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 조건이 소비자들에게 ‘값이 싸니까 많이 사야 한다’ 라는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한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내게 정말 필요한가?” 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 탐구는 조직 행동의 원리를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Reference. Chapter. 5-2. 지각과 의사결정(오류)  
2024-11-10 23:59까지 사용가능

그림 3: 지각과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 링크 (출처: 상명대학교 e-Campus <조직행동론>)

## 4. 시험 방식 및 후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통합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적 또한 통합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로, 모든 분반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룹니다. 이때 20시 전까지 입실이 가능하기에 선택적으로 시험 전까지 자유롭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총 2시간 30분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문제 유형과 개수가 많아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19시 10분 정도에 입실해 시간을 거의 다 채워 시험을 마치는 편이었습니다.

시험은 단답형, 다지선다형, O/X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0문제가 출제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문제 유형의 비중은 각 30%, 50%, 20%였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전체의 30% 정도로 주로 이론의 이름이나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지선다형 문제는 약 60%를 차지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응용 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O/X 문제는 약 20%로, 헛갈리기 쉽게 출제되므로 확실한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 중 331점이었으며, 최고점은 489점이었습니다. 반면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는 296점, 최고점은 453점으로, 결과에서 보이듯이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응시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방법

최병권 교수님의 시험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조직행동론>을 공부하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깨달았으며 A+ 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저의 세 가지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	2학기	조직행동론	HAAE5004	3	2전선	3	A+
------	-----	-------	----------	---	-----	---	----

그림 4: 2024학년도 2학기 <조직행동론>의 성적

### 첫째, 학생이 아닌 교수님이 되어 보자!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이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님이 되어 <그림 5>처럼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려면 단순한 개념 이해를 넘어 해당 내용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고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과정에서 대충 이해했던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던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때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복습할 때는 ‘확증편향’과 ‘활용적 편견’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문제를 만들어보니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많이 헷갈렸으며 결국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두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려워하는 시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행동론>의 시험 유형은 다양하게 구성되기에 이를 고려한 학습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각 유형에 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셀프 문제 출제와 오답 풀이 과정을 통해 단답형 문제에 대한 약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문제를 직접 내다보면 개념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지에 대한 감각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 문제를 만드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꾸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의 학습을 벗어나, 교수님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셀프 문제 출제’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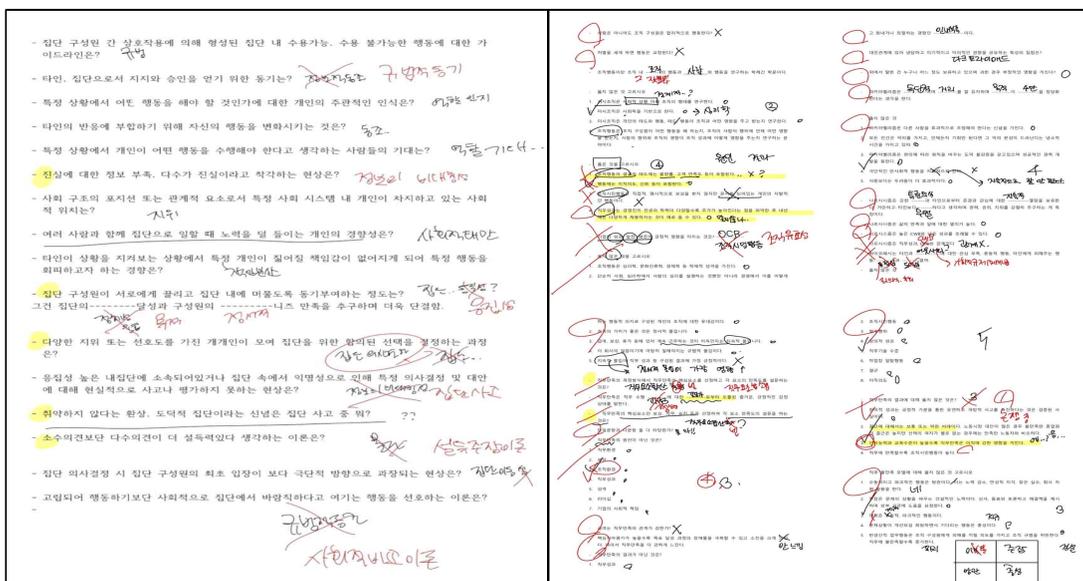


그림 5: 좌: 셀프 문제 출제 / 우: 단답형 집중 문제 출제

## 둘째, 백지 공부법: 생각하고, 연결하기

백지 공부법은 백지상태에서 개념을 떠올리고 스스로 작성하며 기억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공부해야 할 조직 이론이 많아 헛갈릴 때 빈 노트에 이론들을 적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수업 내용을 공부한 뒤 이해한 내용은 <그림 6>처럼 검은 펜으로 전부 적고, 빠진 내용이나 잘못 쓴 부분은 빨간 펜으로 보충하며 학습했습니다. 이는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제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지 공부법은 한 개념에 대해 제가 아는 것과 몰랐던 것의 연계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개념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떠올리며 각 개념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 시험 기간 동안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는 백지 공부법을 활용하지 않았고 기말고사부터 활용했더니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더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백지 공부법을 통해 머릿속에 확실히 개념이 남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법은 저에게 잘 맞아서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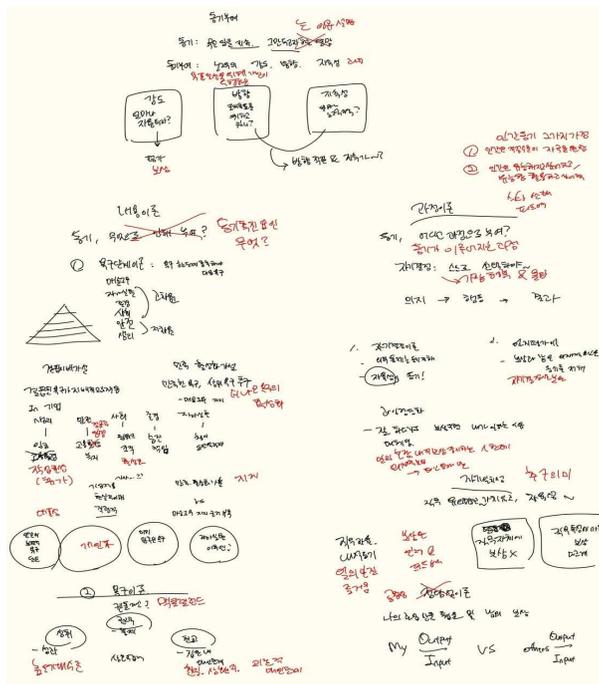


그림 6: 백지 공부법

### 셋째, 반복 학습은 나의 힘!

저는 <조직행동론>시험에 대비할 때 총 5 회독을 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 속에 깊이 새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반복 학습법은 색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개념을 저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1회차에는 가볍게 훑어봅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가볍게 내용을 읽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구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2회차부터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주요 키워드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3회차에는 암기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보완합니다. 세 번째 회독에서는 전체적인 이해는 완료했지만 완벽히 외우지는 못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암기가 잘되지 않는 부분을 ‘초록색 형광펜’으로 강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암기가 부족한 개념을 확인하며,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4회차에는 셀프 문제를 복습합니다. 셀프 문제를 푼 뒤에 틀린 개념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헛갈리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갑니다. 마지막 5회차는 최종 확인입니다. 시험 직전, 끝까지 암기되지 않는 내용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최종적인 복습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핵심 부분을 반복하면서 암기를 확실히 다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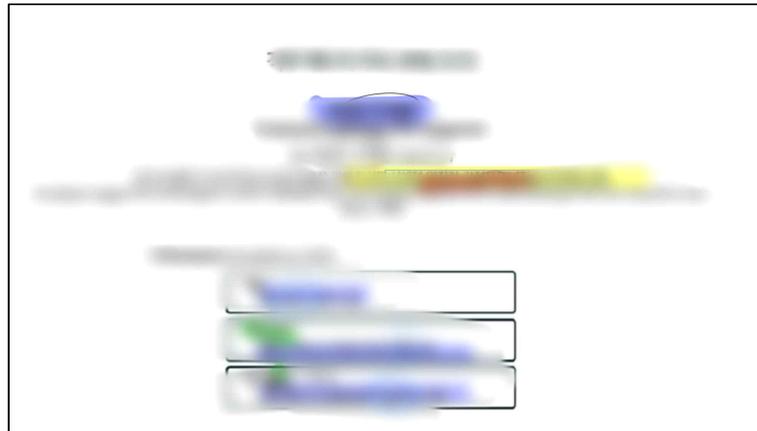


그림 7: 수업 자료에 5 회독을 한 모습 (저작권 상의 이유로 내용은 블러 처리했음)

<그림 7>을 참고하면 제가 활용한 5 회독 학습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학습하면 주요 개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유용합니다.

## 6. 강의 추천 이유

<조직행동론>이 다른 과목들과 차별화되고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 첫 번째는 함께하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상황극도 하시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수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링크를 e-Campus에 공유하시고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십니다. 결과 데이터는 교수님의 해석을 통해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행동 이론이 적용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전에 심리 검사나 의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8>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자신의 성격과 리더십의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였습니다. 이처럼 조직 이론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성향과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이 수업의 큰 장점입니다. 더하여 학생들은 QR 코드를 활용해 익명으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교수님이 던지는 퀴즈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고 함께하는 수업이 됩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에 경영학이 어렵거나 입문하는 학우들에게 <조직행동론>을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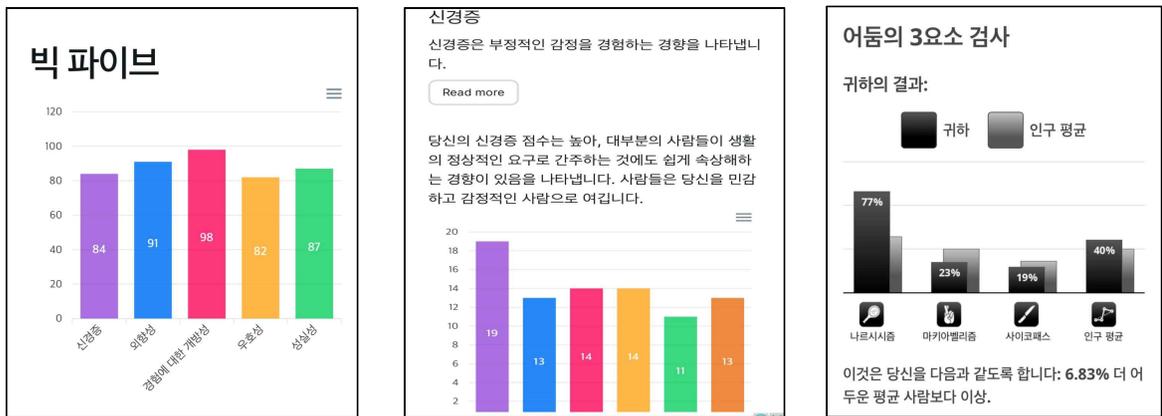


그림 8: 심리검사 결과

두 번째는 매우 체계적인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일정, 과제 제출 양식, 시험 범위, 유의 사항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e-Campus에 상세히 공지해주셨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시험 기간을 고려해 원격 강의를 진행하실 때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 혼란이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또한 강의 운영에서도 체계적으로 시간 배분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을 정시에 시작하고 50분에 끝나는, 시작과 끝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셨습니다. 지체 없이 진행된 수업 덕분에 강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진도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강의 운영 방식은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수업 구조 덕분에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행동론>은 전공 지식 전달을 넘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우수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7. 강의 수강 소감 및 미래 계획

<조직행동론> 강의를 통해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 원리가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학습법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셀프 문제 출제, 백지 공부법, 반복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병권 교수님의 <경영학원론> 수업에서 A를 받았다면, 이번 <조직행동론>에서는 A+를 받게 되어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만의 학습법을 확립할 수 있었고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배운 이론은 제가 참여한 대외 활동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활동에서 총무부장을 맡아 팀 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정사업본부장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수업에서 배운 소통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더욱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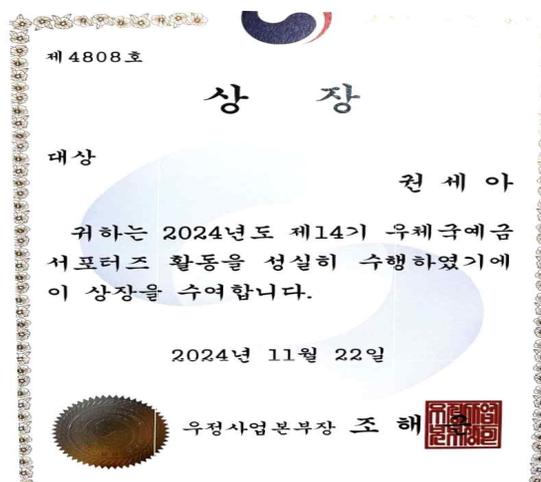


그림 9: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우정사업본부장 상장

또한 <조직행동론> 수업은 저의 관심 직무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직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직 내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끄는 역할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대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정할 것입니다. 더하여 인사관리와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HRD 자격증을 준비하며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 조화와 협동을 이루는 것은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조직행동론>은 저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이론을 넘어 실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도 이 강의를 진심으로 추천해 드리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웹프로그래밍 수강 후기

빅데이터융합전공 22학번 신지우

2024학년도 2학기,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권지은 교수님의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하며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HTML, CSS, JavaScript를 활용한 웹 개발 기초부터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웹 사이트를 구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강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강의를 소개하고, 학습 과정과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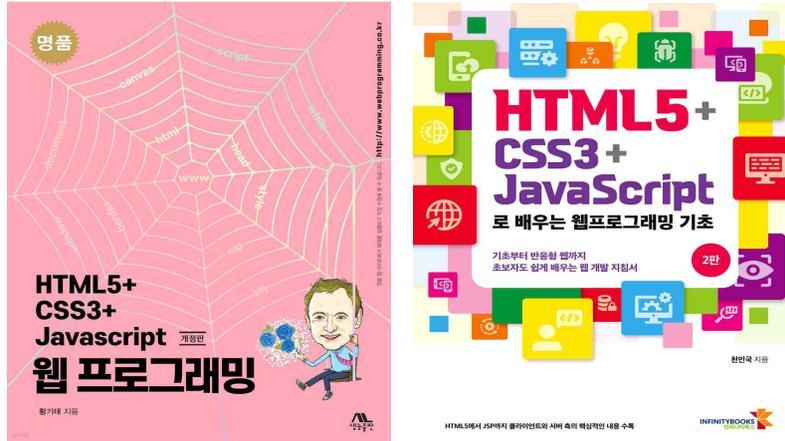
### 1. 웹프로그래밍 강의 정보

웹프로그래밍 강의는 인터넷과 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신 웹 서비스 기술의 트렌드와 기초 이론을 익히고, 웹 사이트 개발을 위해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기술을 실습합니다. 특히, 웹 설계에서부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웹 사이트 구현, UI 디자인 연계 작업까지 실제로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융합공과대학 지능·데이터융합학부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의 2학년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인문사회과학대학 빅데이터과학연계전공의 학점 인정 과목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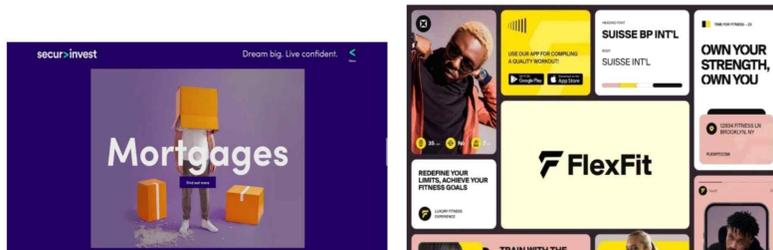
주요재로는 <HTML5+CSS3+Javascript 웹 프로그래밍>(황기태, 생능출판사)와 <HTML5 + CSS3 + JavaScript로 배우는 웹프로그래밍 기초>(천인국, 인피니티북스)가 사용되었으며, 강의는 주로 교수님께서 제공하신 PPT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 1> 웹프로그래밍 주교재

미니멀리즘 디자인 / 벤토 그리드 레이아웃(Bento grid layouts) (1) 유연한 그리드 시스템 → 반응형 웹 디자인에 용  
(2) 다양한 콘텐츠 배치 가능  
(3) 모놀리thic 디자인

-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추세임
- 접하는 정보가 점점 많아 지면서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찾길 바라는 사용자들의 욕구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구성하여 디자인
- **벤토 그리드 레이아웃(Bento grid layouts)**은 도시락 박스와 같이 레이아웃을 디자인 - **모던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그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여 사용



<그림 2> 웹프로그래밍 강의 자료 01\_Introduction p.11

## 2. 강의 수강 이유

제가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필수 이수 조건 충족입니다. 금융데이터AI융합 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및 금융데이터융합전공,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등 다양한 학과에서 개설된 강의를 영역별로 이수하여 최소 36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수대상 교과목 중 <개인정보보호론>, <영상패턴인식(패턴인식)>, <빅데이터분석>, <경제학의이해>, <금융시장과금융기관>, <경영빅데이터분석>, <ICT융합비즈니스개론> 등 다양한 관련 교과목을 수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강 교과목 중 하나인 <웹서비스프로그래밍>이 개설되지 않아 학과장님과 상담한 끝에 유사 교과목인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의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웹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Python, C, Java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능 구현을 넘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기 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공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평가를 받으며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 설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도 디자인의 완성도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웹프로그래밍 강의는 전공 이수를 위한 필수 학점 충족과 더불어, 공모전 참여 등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웹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였습니다.

### 3. 강의 내용 및 중간·기말 고사

수업은 <표 1>과 같이 기초 이론부터 실습을 통해 웹 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HTML5의 기초와 문서 구조를 학습하며, 웹 페이지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5주차와 7주차에서는 CSS를 활용해 웹 페이지를 꾸미는 스타일링 기법을 배우며, 텍스트와 박스 모델, 시각적 효과, 고급 활용 기술 등을 실습합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과제물로 제작한 자기소개 페이지 발표를 통해 실습 결과물을 공유하며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9주차부터 13주차까지는 JavaScript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합니다. 변수와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등 기본 문법을 익히고, 배열과 문자열, DOM(Document Object Model) 조작, 이벤트 핸들링 등 동적인 웹 페이지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심화 학습합니다.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는 과제 방향성에 대해 교수님께 말씀드리며 개인별 중간 피드백을 받습니다.

14주차와 15주차는 기말 과제를 통해 수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웹 페이지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강의는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부터 실무 적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유익한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프로젝트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암기 위주의 시험과 달리 암기의 부담은 적었지만 컨셉 설정, 아이디어 구상, 콘텐츠 구성,

기능 구현 측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차 별 수업 계획	
1주차	Introduction
	웹과 웹 프로그래밍 개요 / 웹 트렌드
2주차	웹 페이지 구축 개요 / 웹 프로그래밍 / HTML5 (1) : 기초
	개요 및 기본 문서 만들기
3주차	HTML5 (2) : 기본 문서 만들기
	이미지와 표 만들기 하이퍼링크 및 미디어 삽입
4주차	HTML5 (3): 문서 구조화와 웹 폼
	문서 구조화, 웹 폼, 폼 만들기
5주차	UI디자인 CSS (1): 웹 페이지 꾸미기
	스타일 시트, 선택터
6주차	CSS (2) : 웹 페이지 꾸미기
	색과 텍스트 꾸미기, 박스 모델, 시각적 효과
7주차	CSS (3) : 고급 활용
	배치, 리스트 꾸미기, 표 꾸미기, 폼 꾸미기
8주차	중간고사
	자기소개 페이지 발표
9주차	Javascript (1): 기초
	데이터 타입과 변수, 식과 연산자
10주차	Javascript (2): 기초
	조건문과 반복문, 함수
11주차	Javascript (3): 객체와 배열
	객체 생성, 배열과 Array, String
12주차	Javascript (4): DOM(Document Object Model)
	DOM 객체, HTML 요소
13주차	Javascript (5): 이벤트
	이벤트, 마우스 핸들링, 기말고사 중간 피드백
14주차	기말고사 1/2
	웹 페이지 개선 프로젝트
15주차	기말고사 2/2
	웹 페이지 개선 프로젝트

<표 1> 웹프로그래밍 주차 별 수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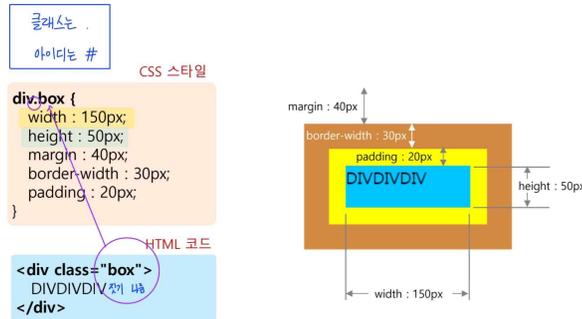
## 4. 강의 학습 과정

### 1) 교재 기반 이론 학습 및 실습 진행

강의는 이론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학습은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CSS의 박스 모델 사례를 통해 <div> 태그를 중심으로 박스 크기, 패딩, 마진

등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웹 페이지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실습은 이론 학습 후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과정과 <그림 4>와 같이 결과 페이지를 보고 스스로 소스 코드를 작성 및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박스 크기 - <div> 태그의 박스 모델 사례



<그림 3> 05\_CSS 웹페이지 꾸미기 p.7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displaying a 'Coffee' website. The browser window is annotated with labels for various parts of the page: 'header', 'nav', 'Section>article' (for coffee menu items), 'Section>article' (for a survey), and 'footer'. The coffee menu items are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and '카페모카', each with a '주문하기' button. The survey section is titled '설문지' and asks for coffee consumption frequency and gender. Below the browser, a code editor shows the HTML structure for the survey form, including radio buttons for frequency (1-4 years) and gender (male/female), and a dropdown menu for coffee preference.

<그림 4> 04\_HTML 문서 구조화 p.40(상), 작성한 소스코드(하)

## 2) 강의 내용 정리

웹프로그래밍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외워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께서서는 암기하기보다는 기능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5>와 같이 노션(Notion)을 활용해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학습했던 주요 개념들을 필요시 빠르게 찾아 볼 수 있고, 이미지나 참고 동영상 링크 삽입 등의 편집이 용이해 중간/기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능이나 개념을 효율적으로 찾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5> 노션을 활용한 강의 내용 정리

## 5. 강의 추천 이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수강하며 흥미롭고 유익했던 내용 중 하나는 색상에 관한 학습이었습니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늘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색을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통해 각 색상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톤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배우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한 색상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과 미적 감각이 부족한 공대생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얻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퀴즈 형식으로 색상과 톤을 맞추는 활동은 학습에 재미를 더 해주었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과거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웹페이지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 웹페이지와 개선된 웹페이지를 비교하며, 당시의 웹페이지 제작 트렌드와 현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개선된 웹사이트를 보며, 제가 진행할 기말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도 더욱 커졌던 기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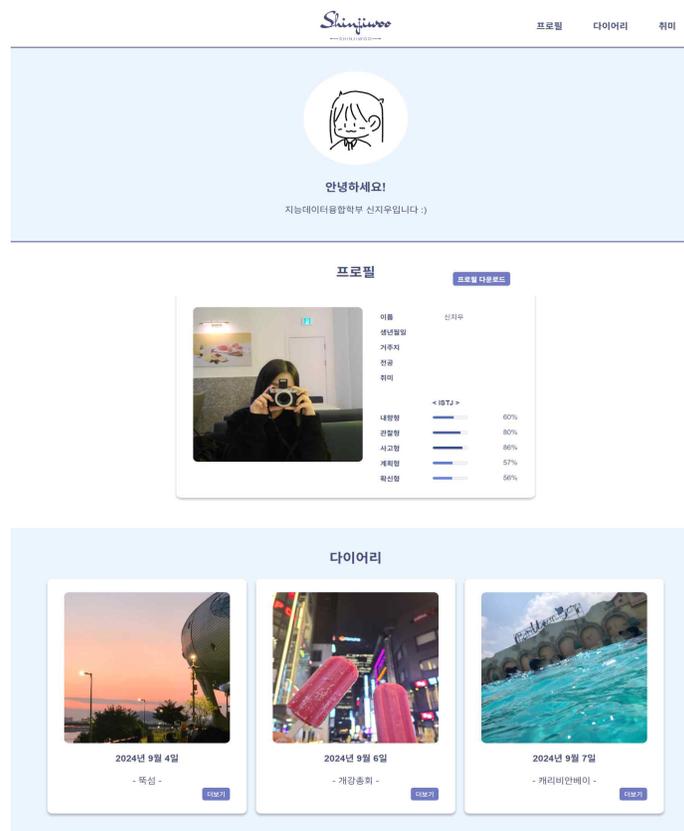
남니다.

웹프로그래밍 강의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무와 디자인 감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프로젝트, 그리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우들에게 웹프로그래밍 강의 수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6. 강의 수강 성과

웹프로그래밍 강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간고사는 HTML과 CSS를 활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자기소개와 취미 등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자유롭게 작성하며, 메인 페이지 1개와 서브 페이지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림 6>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의 색을 활용하여 화면을 분할하고 프로필, 다이어리, 독서와 게임 등 저의 취미와 관심사를 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HTML과 CSS로 웹 페이지를 구체화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우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배울 점을 얻었고, 교수님의 총평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6> 자기소개 페이지

기말고사는 기존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학과 지성사 홈페이지’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 7>과 같이 기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한 개선 사항을 적용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림 8>과 같이 발표자료를 구성하여 발표와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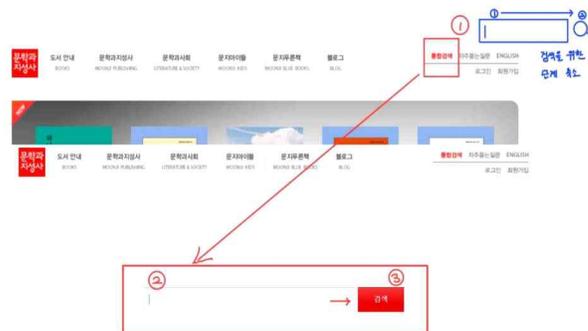
개선할 홈페이지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으며,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면 기존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디자인적 문제와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홈페이지를 직접 분석하고 개선안을 구현해 본 경험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디자인 요소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웹 페이지 제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메인 페이지 >

수정 사항 1: 홈의 새로운 책의 정보가 잘 보이도록 배경 이미지와 글자색 수정



수정 사항 3: 세 번의 클릭, 두 번의 로딩이 필요한 검색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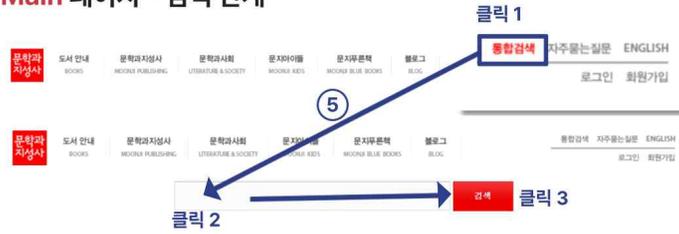
<그림 7> 기말 프로젝트 웹페이지 개선 사항 도출

## IA 정보구조도



<그림 8-1> 문학과 지성사 개선 IA

## Main 페이지 - 검색 단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⑤ 검색을 위해 필요한 3번의 클릭과 2번의 로딩 검색을 위한 단계 축소 필요

<그림 8-2> 웹페이지 개선 사항 설명

## Sub 페이지 - 수상도서



## Sub 페이지 - 신인문학상



<그림 8-3> 기말 프로젝트 웹페이지 개선 결과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HAIE0026	웹프로그래밍	1전선	3	13.50	A+

<그림 9> 웹프로그래밍 성적

## 이론과 실전의 시너지: 알고리즘 A+와 교내 프로그래밍 대회 1등의 기록

컴퓨터과학전공 22학번 지재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과학전공 22학번 지재현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민경하 교수님의 '알고리즘' 과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에게 단순한 교과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핵심 과목이자, 미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특히 '코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직종의 취업 과정에서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전공자의 개발직 진출도 활발해졌고, 이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코딩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강 신청 당시에는 단순히 전공 과목이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실용적인 이유로 수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체계 문제해결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값진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이후의 학습 여정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고리즘 수업이 어떻게 한 학생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앞으로 이 강의를 수강할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경하 교수님의 '알고리즘' 수업은 기존의 알고리즘 교육 방식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학습은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여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구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룹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로 민경하 교수님의 '민고리즘' 수업입니다.

대학에서 첫 전공 수업을 들을 때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연륜이 있으신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한자로 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수업의 개념을 한자어로 설명하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비유하는 방식입니다. 일견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수식과 기호로 가득한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접근법이 신선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왔습니다.

민고리즘 수업은 체계적인 학습 설계가 돋보입니다. 매주 2시간의 대면 강의와 1시간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면 강의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 개념과 문제 해결 전략을 학습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전 주차의 과제와 퀴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주 백준 온라인 저지의 문제들 중 해당 주차의 학습 주제와 연관된 문제들을 선별하여 과제로 제시하십니다. 또한 수업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퀴즈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제와 퀴즈의 분량이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알고리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과제로 제시되는 백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문제는 해당 주차의 학습 내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이론적 개념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퀴즈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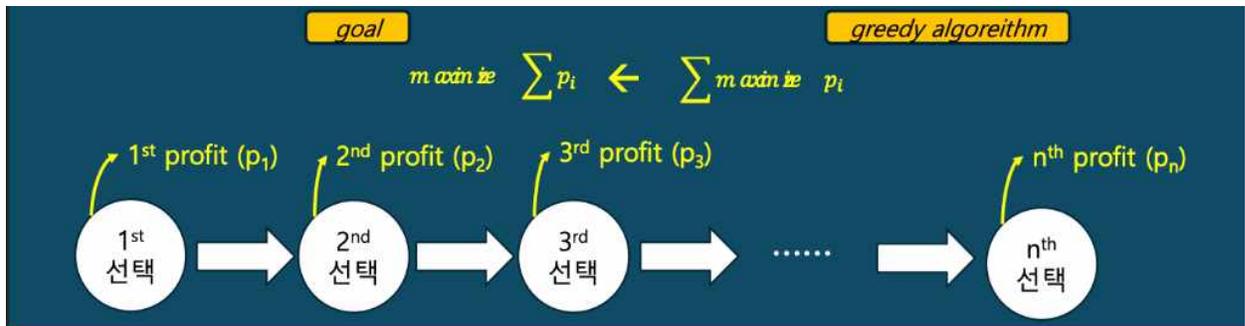
특히, 온라인 강의를 통한 과제와 퀴즈 해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어려워하는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십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단순히 답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알고리즘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험 전 주에는 복습을 위한 강의를 따로 녹화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학생들이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과제, 퀴즈, 복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업 구성은 학생들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력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는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평가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학습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고리즘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들을 다룹니다. 성능분석을 시작으로 분할정복, 그래프, 그리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그리고 NP에 이르기까지 단

계적인 학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그리디' 수업의 교육 자료를 통해 교수님만의 독특한 교수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디는 '탐욕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선택을 거쳐 최대 이익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단계마다 당면한 상황에서의 최적의 선택을 수행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수식과 그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수식과 기호를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로 풀어줍니다.

### 1. Greedy algorithm이란?

- 왜 그리디 알고리즘이 정당한가?

# 朝三暮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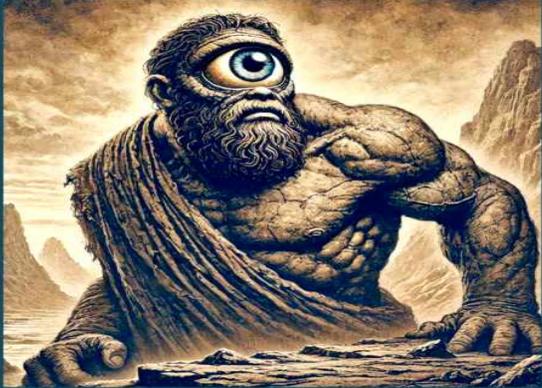
교수님께서서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고사성어 '조삼모사'를 활용하십니다. '조삼모사'는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달라는 것과 같이, 눈앞의 차이만을 따지고 결과가 같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를 통해 교수님은 그리디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네 개를 받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네 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는 비유를 통해,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을 중요시하는 수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님은 실제 알고리즘 코드 구현에 앞서 칠판에 코드의 진행 순서를 직접 작성하며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0. 사이클롭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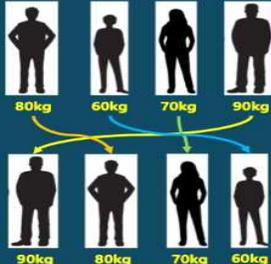
- 사이클롭스 (Cyclops)
  - 호메로스가 쓴 오딧세이에 나옴
  - 포세이돈의 아들 (금수저)
  - 외딴 섬에서 혼자 살고 있음
  - 잡식성
  - 난파되어 찾아오는 사람을 잡아먹음



**0. 사이클롭스 문제**

- 사이클롭스 문제 1
  - 어느날 사이클롭스는 자신이 사는 동굴에 n 명의 사람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개꿀~~ 사이클롭스는 이 n명을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기로 결정했다. 사이클롭스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 (1) 몸무게가 높은 순서로 잡아먹는다
  - 90kg → 80kg → 70kg
- (2) 몸무게가 낮은 순서로 잡아먹는다
  - 70kg → 80kg → 90kg
- (3) 랜덤하게 잡아먹는다
  - 80kg → 70kg → 90kg



민경하 교수님의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어려운 알고리즘 개념을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독특한 교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디(탐욕)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의 '사이클롭스' 이야기를 활용하시는데, 이는 수업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교수님께서 사이클롭스의 특징인 '외눈박이', '잡식성', '난파된 배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습성'을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과 연결시키십니다. 특히 사이클롭스가 눈 앞의 이익만을 좇는 성격을 가진 점에 착안하여, 그리디 알고리즘의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특성을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 실제 문제 풀이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데, 예를 들어 “사이클롭스가 n명의 사람을 체계적으로 잡아먹는 방법”이라는 재치있는 문제 설정을 통해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무게에 따른 정렬 문제를 통해 최적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며,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신화 속 이야기와 실제 알고리즘을 연결시키는 교수님만의 독특한 교수법은, 딱딱할 수 있는 알고리즘 수업을 흥미진진한 탐구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코드 구현을 넘어, 문제 해결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C는 1초당 약 1억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의 실행 과정을 직접 따라가며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교수님께서서는 4개의 데이터만을 가진 작은 규모의 예시를 통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과 코드의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교수님만의 특별한 교수법 중 하나는 수업 자료에 친근한 구어체 표현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일상 언어를 수업 자료에 반영하여, 어려울 수 있는 알고리즘 개념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수업 중 개별 학생들을 지목하여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시며, 특히 “이해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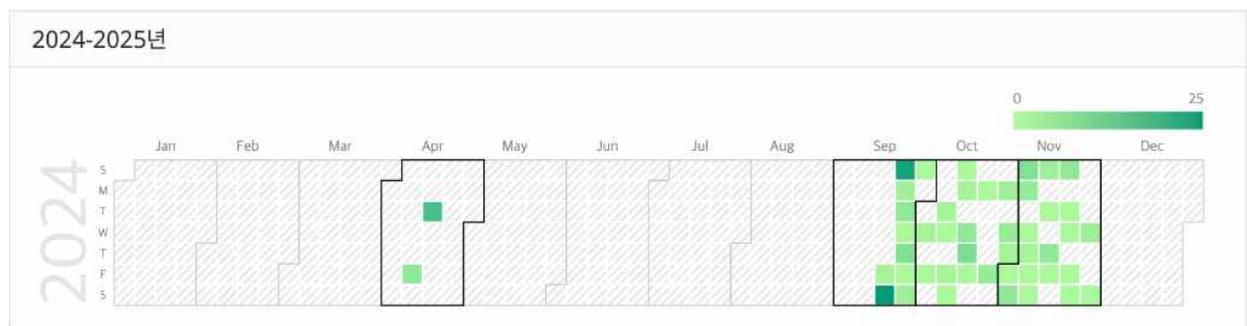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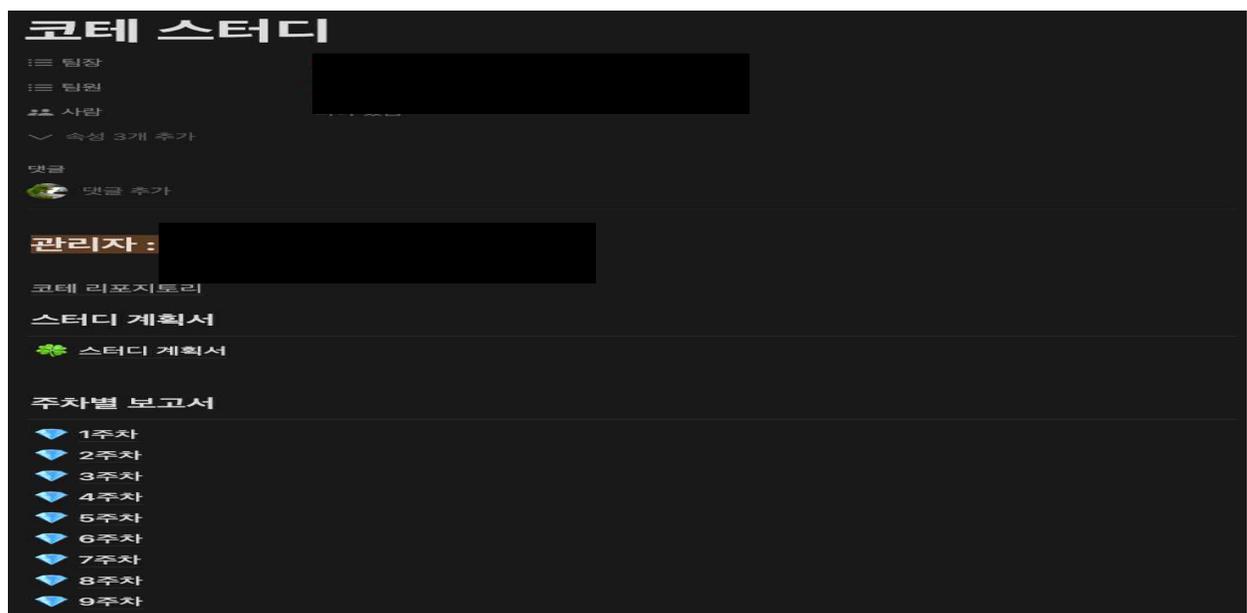
민고리즘 수업은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며, 알고리즘은 취업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코딩 테스트 없이 취업 없고, 알고리즘 없이 코딩 테스트 없다” 라는 말씀으로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기 말에는 ‘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 분석’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합니다. 희망 학생들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들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 과정을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팀을 구성하여 IBM과 Meta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https://url.kr/q4xijc>)

이러한 실전 중심의 교육 방식은 수업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기업의 문제를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매우 가치있는 학습 기회가 됩니다.

민고리즘 수업은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를 효과적으로 고취시킵니다. 2024년 11월 12일,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중앙동아리 ‘이니로’가 주최하고 SW중심대학사업단과 비교과통합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수몽점’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대회 수상자에게 추가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지하시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전공 과목들의 평균적인 난이도와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다소 안일한 태도로 학습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느껴진 것이 오히려 시험 준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자만심과 알고리즘 과목이 쉽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중간고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알고리즘 공부에 더욱 매진하며 대회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간고사의 쓴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 ‘이니로’의 코딩 테스트 스터디에 참여하고 백준 온라인 저지 (Baekjoon Online Judge, 알고리즘 트레이닝 사이트)에서 개인 학습을 병행하며 알고리즘 실력 향상에 매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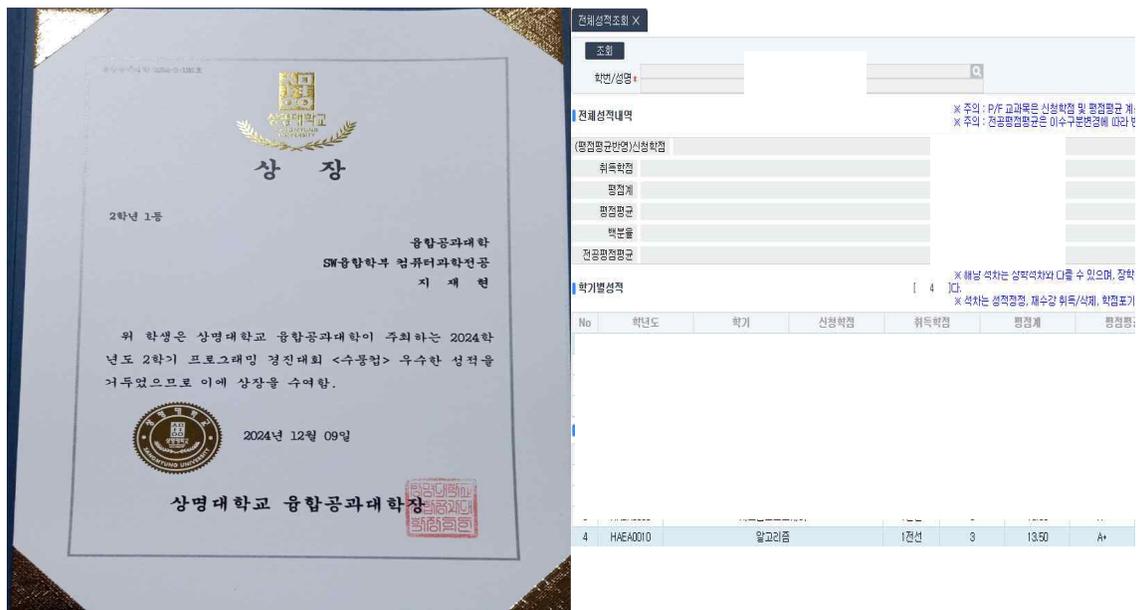


중간고사 이후, 저는 알고리즘 실력 향상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학습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준 온라인 저지를 통한 개인 학습이었고, 두 번째는 동아리 스터디를 통한 협력 학습이었습니다. 특히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의 꾸준한 문제 풀이 는 제 알고리즘 실력 향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일 문제를 풀며 꾸준히 학습했고,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제공하는 티어(등급표)는 실력 향상의 객관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동아리 스터디를 통한 협력 학습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터디는 주차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팀장과 팀원들이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진행된 스터디에서는 매주 새로운 알고리즘 유형을 다루며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은 결실을 맺어,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융합공과대학 알고리즘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정하 교수님의 수업과 함께, 개인 학습과 스터디를 통한 보완적 학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알고리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 연습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의 꾸준한 활동 기록과 체계적인 스터디 참여는 이러한 깨달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력들이 모여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이 주최한 프로그래밍 정진대회 ‘수몽컵’에서 2학년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상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정하 교수님의 알고리즘 수업은 제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시작했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문제 해결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의 좌절을 극복하고 최종

적으로 A+ 학점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할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수님의 독특한 교수법을 통해 전달되는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개념들을 친근하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방식은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둘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 문제 풀이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나 동아리 스터디와 같은 추가적인 학습 활동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해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고리즘 수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론과 실습이 조화롭게 구성된 커리큘럼, 학생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법, 그리고 실전 중심의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이 앞으로 이 강의를 수강할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 합니다.

## 교직실무 과목을 통한 나의 교직생활 미래 설계

국어교육과 22학번 김지연

### 1. 강의와 나의 만남

교직실무는 사범대생이라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교직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예비 교사에게 중요한 강의 중 하나이지만, 저는 처음 이 강의를 선택하였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 수업은 제가 앞으로 교사가 될 준비를 하며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왜 이 과목이 필수 교직 과목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운 가치 그리고 예비 교사로서의 제 비전을 형성하는 데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한 백수는 교수님의 교직실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2. 강의의 우수성과 나의 경험

#### ● 강의 소개

첫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의 수업 목표, 강의 계획, 평가 방식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교직 과목들과 접목시켜 교직실무란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직무관련 상황과 교육 현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 예비 교사로서 종합적 판단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여 교직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의 목표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교직원을 형성한다.
2.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와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예비교사로서 비전을 수립하여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한다.
3. 교과수업, 학급경영, 생활지도, 행정실무 등 교직 수행 전반을 탐색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사의 역할과 실무를 이해함으로써 교직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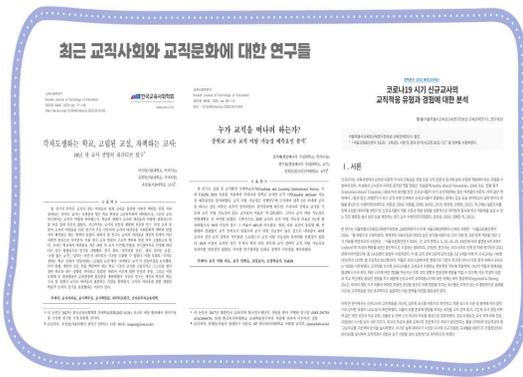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주의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체 과제로 대신하는 중간고사와 지필 평가인 기말고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30%를 차지한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과제를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2주차부터 대면으로 시작된 교수님과의 첫 수업에서 부담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qr코드를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수업에 입장하여 수업 중간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으며 단순히 ppt의 내용을 함께 읽으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오늘 수업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여 수업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수업이 부담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1) 강의 내용의 우수성 방식

강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he image shows three pages from a spiral-bound notebook, likely course materials. The first page, on a yellow background, is titled "[유형: 개혁가]" (Type: Reformer) and discusses the role of a reformer. It includes a list of characteristics and a "키워드" (keyword) section. The second page, on a white background, is titled "완벽을 추구하는 선생님" (Teacher who seeks perfection) and lists characteristics of such a teacher. The third page, on a pink background, is titled "[에니어그램을 통한 나 바로알기]" (Knowing myself through Enneagram) and explains the Enneagram system. It includes a diagram of the Enneagram with numbers 1-9 and labels for each type, and a text box explaining the Enneagram's purpose.

◀주차 수업자료▶



<3주차 수업자료>

### 학급경영계획 수립-1. 학급운영 목표

다. 학급 운영 원칙과 교양형성 설명

본교 교육목표와 운영원칙을 고려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학급 운영 원칙>과 <교양형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학급 운영 원칙

학급 운영 원칙	내용	구체적 실천 방안
1. 학생 중심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2. 상호 존중	학생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유도한다.	학생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유도한다.
3. 자율성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습 동기를 높인다.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습 동기를 높인다.
4. 협력	학생 간 협력 학습을 장려한다.	학생 간 협력 학습을 장려한다.
5. 창의성	학생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학생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6. 책임감	학생에게 학습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학생에게 학습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7. 소통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8. 긍정적 태도	학생에게 긍정적 태도를 기르게 한다.	학생에게 긍정적 태도를 기르게 한다.
9. 건강한 생활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한다.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한다.
10. 안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 학급 운영 목표

구분	목표	구체적 실천 방안
1. 학업성취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2. 교양형성	학생의 교양수준을 높인다.	학생의 교양수준을 높인다.
3. 사회성	학생의 사회성을 높인다.	학생의 사회성을 높인다.
4. 창의성	학생의 창의성을 높인다.	학생의 창의성을 높인다.
5. 책임감	학생의 책임감을 높인다.	학생의 책임감을 높인다.
6. 소통	학생의 소통능력을 높인다.	학생의 소통능력을 높인다.
7. 긍정적 태도	학생의 긍정적 태도를 높인다.	학생의 긍정적 태도를 높인다.
8. 건강한 생활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한다.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한다.
9. 안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교사 리더십 자가진단 체크표

교사리더십 자가진단 척도

- 자기인식: 강령, 가치관, 철학, 행동의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 변화추진: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 의사소통: 듣기,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글을 통한 의사소통 등을 효과적으로 한다.
- 다양성: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이에 잘 대응한다.
- 능숙한 교수행위와 리더십: 학생과 동료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
- 지속적 발전: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 자기 조직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을 설계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자가진단 척도	점수
자기인식	23
변화추진	23
의사소통	22
다양성	26
능숙한 교수행위와 리더십	27
지속적 발전	19
자기 조직화	22

자가진단 척도 그래프

<4주차 수업자료>

본격적인 수업인 2주 차에서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9가지의 성격 유형들 중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 지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나쁜 상태에 있을 때, 교사로서 좋은 점, 교사로서 힘든 점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쁜 상태에 있을 때를 통해 스스로가 어떻게 보완하고 유의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차 수업에서는 나의 유형의 결과를 알게 되어 “개혁가” 유형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한 교사 스스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찾아서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이후 창의적 실험과 실천을 하게 된다.” 라는 문구처럼 애니어그램을 통해 교사로서 나의 정체성 일부를 찾는 시작을 열 수 있었습니다.

3주 차에서는 교직사회와 교직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교직사회와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여러 논문들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초임 교사의 교직 적용에는 크게 내면화된 적용, 전략적 순응, 전략적 재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시청하고 “나라면 어떻게 저 갈등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저의 교직 적응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직생활을 시작하면 초임교사가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이상과 교육 현실 사이의 괴리에 따른 현실 충격 경험 등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2주 차에서 알게 된 저의 유형이 과연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2주 차에서 배운 나의 유형을 참고하여 “나는 \_\_\_\_ 교사가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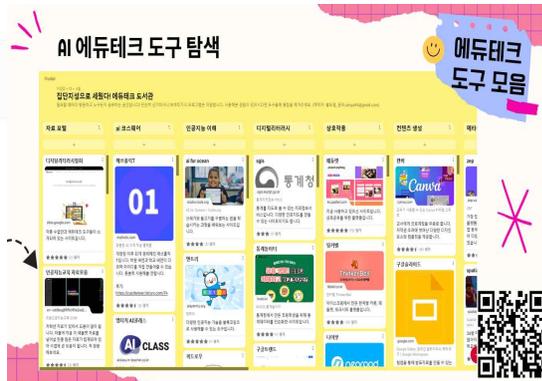
4주 차에서는 학급경영과 교사 리더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급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학급경영의 구성요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급경영계획 수립 단계의 예시들을 통해 배우니 학급 경영 계획서가 담임교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급 경영자로서 교사 리더십 자가 진단을 통해 나의 교사 리더십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봄에 따라 저만의 특색 있는 학급 경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주 차에서 배우는 학급경영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관련된 부분이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는 내가 어떻게 학급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가 막막하여 힘든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4주 차까지 충분히 스스로가 어떠한 유형의 교사이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찾아왔기에 처음에 느꼈던 막막함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방식이 바로 백수은 교수님만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급 경영 계획서를 학생들이 고심하여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따라갈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 2) 교수님의 강의 방식

교수님은 에듀테크 전문가이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띄워둔 qr로 수업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ppt와 연계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다른 강의에서처럼 각자 ppt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여 처음부터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참여하다 보니 토론을 할 때면 여타 수업에서와 같이 주변 학우들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이 결과를 보면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의견을 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기에 다양하고 풍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AI 에듀테크 도구 자료집>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모두가 간단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은 qr로 업로드한 답변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면 더욱 완벽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방식과 위와 같이 개별로 피드백을 주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에듀테크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실제로 수업에 활용하시면서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학년 1학기에 나가는 교생실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3)나의 학습 경험과 성장

교직실무	1교직	2	9.00	A+
------	-----	---	------	----

교수님의 수업에 결석과 지각없이 열심히 참여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들었던 막막함이 무색하게도 높은 성적을 받아 더욱 뜻깊었습니다. 열심히 차근차근 따라간 결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성적을 받게 된 노력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1학년 3반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1년동안 상명 고등학교 1학년 3반을 맡은 담임 김지연입니다. 아이들의 고등학교 첫 시작을 맡게되어 설레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교사로서 학생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1년을 보내려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관

**플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01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지 섬세히 지켜보며 노력합니다. 학생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눈빛과 마음을 전달합니다.

**02 학생은**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친구들을 길모퉁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색활동

우리반은 매주~

교사가 매주 시 한편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는 가정, 스승 등에 관한 시) 학생들은 근처에 있는 친구들과 5~10분 간 시에 대해 분석합니다. 분석한 후 학생들은 느낀 점, 반성하는 부분,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다짐 등을 피들렛에 공유합니다

내적 성장

### 월별 학급계획

7월

년 인문분류에 관심(아-) 리드메이커

<관련 분야 체험 찾아보기>  
1) 관련 분야의 학생들끼리 모여 관련 외부 활동 등을 찾아봅니다.  
(교사가 함께 다양한 외부 활동 찾기)  
2) 없다면 직접 동아리를 같이 구성해봅니다.

(학교행사)  
1일~4일: 기말고사  
19일: 방학식

년 인문분류에 관심(아-) 리드메이커

20년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합니다

년 인문분류에 관심(아-) 리드메이커

<대체 과제 일부분>

실제 3월에 열리는 학부모 협의회에서 발표할 학급 운영에 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였습니다. 임용에 붙고 담임교사를 맡는다면 학급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시간이 빠듯하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도 있게 만들어보기를 바라셨습니다. 학부모 앞에서 발표할 생각에 더욱 완벽도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게 된 욕심이 생겨 교수님이 업로드해두신 고등학교 담임교사 업무 매뉴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고등학교의 일정과 중요한 행사를 파악하고 저의 교육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간에 파악한 나를 바탕으로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시와 작품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에서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는 구절처럼 학생 개개인의 자세히 들여다보며 성장에 기여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임교사와 국어교사로서 특색있는 우리반만의 활동에 대해 고심하며 교육관을 관통하는 월별 학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교사의 유튜브 브이로그와 교사 블로그 그리고 우수 사례 등을 찾아보며 다양한 활동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특색 있는 활동 등을 구성하고 주변 학우들과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해 나갔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피드백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는 2주 차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지필 평가로 실행되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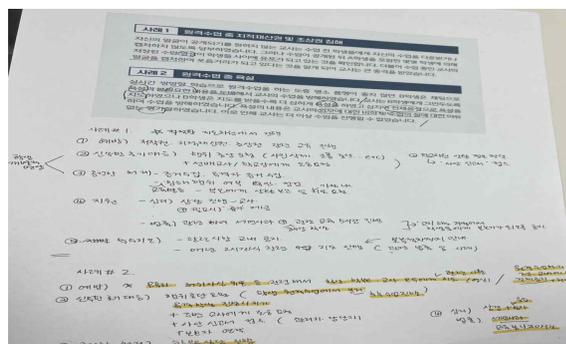
3. 원격수업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1 원격수업 중 지역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사는 수업 전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다른방과나 업로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공개된 뒤 A학생을 포함한 몇몇 학생에 의해 저장된 수업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원격수업 중 폭행**  
실시간 쌍방향 학습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도중 평소 품행이 좋지 않던 학생은 채팅으로 욕설과 불친절한 내용을 도배해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교사는 타학생에게 그만두도록 지도하였으나 해당생은 지도를 받을수록 더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 전체학생으로 욕설을 하여 수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교사의 면모에 대한 비하 및 수업의 질에 대한 이유 없는 평가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

- 교사의 사생활이나 수업영상을 담은 영상파일(영상파일의 캡처본)을 공유하면서 교사를 비하하거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모욕 행위로 볼 수 있음. 모욕은 공명성과 특정성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 타이프를 통해 다른 학생도 들을 수 있는 상황(공명성)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특정성)을 하게 된다면 공명성과 특정성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됨.
- 사례 1과 같이 교사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것을 학생에게 당부하였으나 수업의 영상과 사진을 유통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례 2와 같이 원격수업 중 공명성이 마이너스 채팅을 이용하여 교사를 비방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만약 교사에게 권유할 가능 혹은 비방까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시, 제2호 제3호 및 도모에 의거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특별활동>

<대응 매뉴얼>

수업 중에 조별 활동으로 작성한 대응방법을 토대로 교수님이 올려주신 대응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실제 고등학교 담임교사 업무 매뉴얼을 직접 접해볼 수 있었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정리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자료와 고민들을 미리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3. 강의를 통해 얻은 것과 앞으로의 방향

#### 1)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

3학년 2학기에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교직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교사에 대한 슬픈 소식들과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처음 사범대에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시기였기도 하였습니다. 동기들이 복수 전공, 교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길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백수는 교수님의 교직실무 또한 학교 현장의 어두운 이면이 담긴 내용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다시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교직에 대한 본질을 배우면서 막막함이 전보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관계 다지는 법, 좋은 수업에 대한 고찰, 교원 전문성을 개발하는 법, 교권침해 대응전략 등을 통해 행복한 교사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해 꿈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께는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 2) 앞으로의 개인적 목표

백수는 교수님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시면서 유학과 논문 수상 이력까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교원 인사 및 보수 제도에 대해 배웠을 때 교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 파견, 수석 교사 등에 대한 사실을 접하면서 해외 교사로서의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모습에 교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게 만다르트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얻은 많은 내용들로 되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 많은 결과 다음 아래와 같은 만다르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만다르트를 토대로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교사로서는 계속 도전하면서 그 결과 마스터가 되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교육경력 7년이상	외국어 시험	한국사 등급 ↑	장학금	전공	학업후 계획	외국어 공부	리뷰 인입	IT 자격증
비용	파견	교수 프로그램	학비 아려	대학원 진학	시간 관리	외국어 자격증	자기 계발	세이나
워스업	교육방법	리더십	입학 요건	업무 병행	의지	꾸준한 독서	스트레스 관리	점점
재테크 공부	저축	투자	파견	대학원 진학	자기 계발	혼자 여행	격투기	익스트림 스포츠
지출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점검	자산 관리	마스터 티처	도전	공예	도전	장학금
수입 관리	부가 수익 창출	재무 목표	관계	수업역량	인용	해외 교육봉사	수석 교사	교육 증권
가족	친구	학내	교과 융합	명확한 목표 설정	개인화 관리	규칙적 운동	냉정 공평	하루는 자유
휴식	관계	학부모	디지털 과 활용	수업역량	꾸준히 공부	기술 분석	인용	모의 고사
소확행	일과의 ON /OFF	동료	수업 자료 제안 능력 강화	다양한 평가 방식	원인 교육 문제 탐구	스터디	단권화	학습량 체크

## 내가 찾던 진짜 ‘교양’

경영학부 22학번 김예찬

제가 소개할 우수강의는 계당교양교육원 소속이신 오경은 교수님의 <현대 미술사와 이론>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피카소의 작품이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이 천문학적 가치를 지니게 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양 미술작품들의 배경을 미술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모순점을 타파하여 준다는 점에서,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강의라는 점에서 본 과목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의 교양과목을 제외한 네 개 단과대학 중 세 개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합니다. 본 과목은 예술역량의 균형교양과목에 해당하며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융·복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본 과목을 추천합니다.

### 1. 강의 소개

#### 1-1. 학습 목표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현대 미술사와 이론> 강의는 본 현대미술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 문화와 타 예술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현대미술의 사조를 이끌어낸 이론적 배경과 실체를 배웁니다. 대표핵심역량이 전문지식탐구인 본 교과는, 19세기 모더니티 개념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중후반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그 이후의 포스트모던아트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의 다양한 사조와 관련 이론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미술의 역사가 각 시대가 당면하고 있던 예술의 관습, 위계질서, 그리고 경계에 저항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예술적/사회적 저항과 반목의 연속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논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과 본인의 비평적 사고를 진흥시키는 것을 도모합니다.

## 1-2. 강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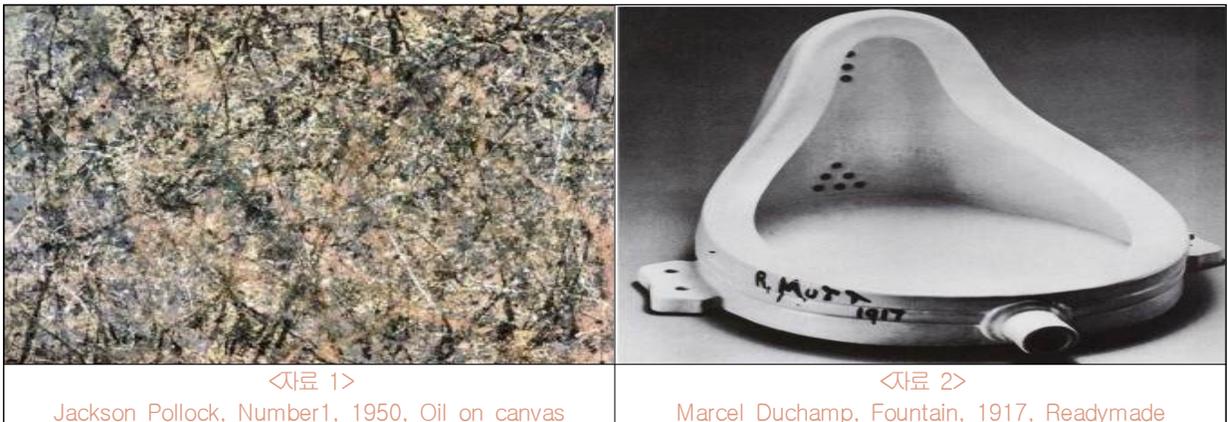
본 강의는 <표 1>의 내용처럼 ‘서양 미술사’라는 큰 줄기를 가지며, 현재에 도래하여 작품이 지니게 된 가치를 미술 사조(思潮)를 통해 해석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작품이 지니는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사례로 하는 현재-과거-현재의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1 주차	수업개괄 / 현대미술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론과의 연관관계
2 주차	모더니티 개념의 출현 / 모더니티에 관한 19세기 예술비평적 접근을 학습
3 주차	개잡쿤스트베르크(Gesamkunstwerk) 개념의 출현 / 19세기에 뿌려진 멀티미디어아트 단초들을 학습
4 주차	모더니티의 회화적 실천 / 에두아르 마네 작품 분석을 통한 새로운 예술실험의 이해
5 주차	리얼리즘 개념의 변화와 추상의 태동 / 야수파와 입체파를 통해 리얼리즘 개념이 변화하며 생겨나는 신개념의 회화방식을 학습
6 주차	초기 추상의 출현 /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을 통해 새로운 리얼리즘 개념이 완전추상에 미친 영향을 이해
7 주차	시험범위 리뷰 / 시험범위 관련 질의응답
8 주차	중간 평가 / 중간고사
9 주차	다다,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 퍼포먼스 아트의 시초: 20세기 초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그룹이 선보인 예술전략이 새로운 예술의 방식 출현을 도모함을 학습
10 주차	마르셀 뒤샹: 레디메이드와 인덱스의 활용 / 다다 이후 반이성의 전략이 불러온 예술제작 방식 및 감상 접근법의 변화를 학습
11 주차	추상표현주의와 그 영향 / 추상표현주의를 낳은 사회적 배경의 이해 및 잭슨폴록이 후세대 작가에 미친 영향을 학습
12 주차	팝아트와 시물라크르 적용 / 보들리야르의 시물라크르/시물라시옹 이 론을 통해 팝아트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재검토
13 주차	미니멀리즘: 예술작품과 관람자의 새로운 관계 / 캐프로우의 신체성 개념 및 프리드의 연극성 개념을 학습 후 이를 미니멀리즘 이해에 적용
14 주차	비트제네레이션과 융복합적 사고 / 비트제네레이션 작가들의 다매체 양상과 기술과 예술의 연동 이해
15 주차	시험범위 리뷰 및 평가 / 기말고사

<표 1>

강의계획서(학습목표 / 주요학습 내용 및 방법)

그 예시로 먼저 <자료 1-2> 같은 현대 미술작품을 소개합니다. 서양 미술사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들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의 낙서 같다”, “그냥 소변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 작품들의 가격이 수천억을 호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많은 학우들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각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통해 수강생들이 이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도 이 작품만큼의 가치가 없는 이유, 이 작품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된 미술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1-3. 중간·기말고사

본 강의는 수업 시간에 다룬 현대미술의 이론과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자료 3~4>의 내용처럼 예시 문항을 시험 이전에 제시하고, 그 중 두 가지를 무작위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간고사는 <자료 3>과 같이 모더니티와 샤를 보들레르의 예술관, 리하르트 바그너의 총체예술 개념, 에두아르 마네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더니즘적 특성, 추상미술의 역사와 주요 작가들의 실험적 접근 등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모더니티의 정의와 이를 구현한 사례, 마네의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현대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기말고사는 <자료 4>와 같이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변화, 다다이스트들의 반미학적 전략, 추상표현주의의 사회적 배경 및 미학적 논점 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현대미술에서 ‘작업’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다다이즘의 사회적 의의를 마르셀 뒤샹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문제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 사례를 활용하여 논술형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p>1) 샤를 보들레르가 말한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역사성과 초월성을 키워드로 삼아 그 정의를 서술하시오. 더 나아가 모더니티성을 갖춘 화가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작품 방식을 택한지, 그의 저서 “1846년 살롱” 및 “현대적 삶의 예술가”를 참조해 설명하시오. (이때 Constantin Guys를 포함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 단안을 작성할 것.)</p> <p>2) 리하르트 바그너가 주장한 총체예술(Gesamtkunstwerk)은 무엇인가? 그 전제들과 성격, 특징 등을 &lt;미래의 예술작품&gt;을 참조해 기술한 뒤, 그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19세기 게르만 역사적 맥락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또한 바그너가 설계한 바이로이트 극장에서 게잠콘스트베르크를 실현하는 방식을 실제 극장 내부 부분들을 활용해 서술하시오.</p> <p>3) 에두아르 마네의 &lt;풀밭 위의 점심식사&gt;와 &lt;올랭피아&gt;에서 읽어낼 수 있는 모더니즘의 자취에 대해 서술하시오. 먼저, 주제적 측면에서 현대인 일상 속의 영웅성이라는 모더니티의 요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설명하고, 형식적 측면에서 기존 예술에 도전한 현대적 특색은 무엇인지, 평면성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p> <p>4) 추상미술의 역사에 있어 마티스와 피카소는 모태가 되는 주요 작가들이다. 그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망막적 리얼리즘에 저항하였는지 서술하시오. 그들의 혁명적 예술 실현 이후 바셀리 칸딘스키는 완전추상에 이르게 된다. 그가 추상을 버리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는 무엇을 근거로 완전 추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각 작가당 최소 1개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설명할 것)</p>	<p>1. 현대미술에서의 패러다임은 ‘작업’, 즉 전통적 의미에서의 작품을 만드는 기법적 우수성에서 ‘작가가 제공한 개념’, 즉 작가의 아이디어의 독창성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였다. 전후 예술인 다다에서부터 1960년대 팝아트, 미니멀리즘, 비트제네레이션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작품 5개(각기 다른 사조)를 골라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시오.</p> <p>2. 다다이스트들이 보여준 반미학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며 이것을 실천 하기 위한 방법적 전략은 무엇인가, 뿌리히 다다와 마르셀 뒤샹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p> <p>3. 추상표현주의가 자라난 (1)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2) 추상표현주의 예술을 설명하는 두 비평담론인 그린버그 미학과 로젠버그 미학을 요약한 뒤, (3)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논의에 맞추어 잭슨폴록의 작품의 특성을, 로젠버그의 실존주의 담론에 맞추어 폴록의 작업방식을 서술하시오.</p> <p>4. 1960년대, 추상표현주의와 그의 옹호자인 모더니즘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미술 사조들이 등장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조들로 팝아트, 미니멀리즘, 그리고 비트 제네레이션의 멀티미디어 작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사조들이 모더니즘 담론을 어떠한 논리로 해체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작품으로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각 사조 별로 1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p>
<p>&lt;자료 3&gt; 중간고사 안내자료</p>	<p>&lt;자료 4&gt; 기말고사 안내자료</p>

## 2. 추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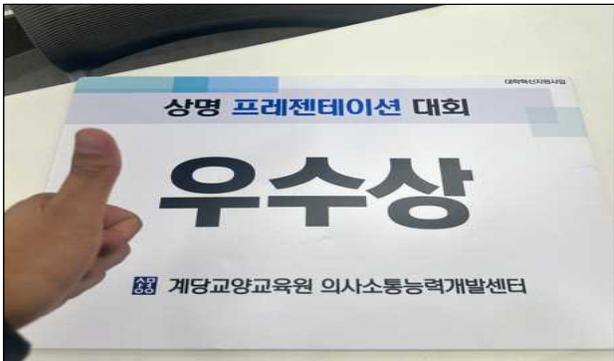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대미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산물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구체적인 발전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더니즘의 출현 배경과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 오늘날의 현대 미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의 분기점에서 그들이 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시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예술적 흐름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Soft Skill’에 해당하는 역량들을 두루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Soft Skill’이란 사람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팀워크,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등)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Soft Skill’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업무 수행이나 대인 관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인 ‘Hard Skill’만큼이나 ‘Soft Skill’이 주요하게 기능합니다. 이 강의는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한 배경과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예술작품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Soft Skill’에 해당하는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는, 실존하는 ‘나’에 대해 주체적으로 사유하도록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13주차 이내에 근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직접 관람하고, 전시 비평을 작성하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제가 수강하던 당시에 여러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자료 5-6>처럼 <Peter Weibel :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했습니다.





	<p>상명예세이 경진대회(비평) 수상안내</p> <p>안녕하십니까. 계당교양교육원교학팀 김현준입니다.</p> <p>상명예세이경진대회에 참여해주신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비평적 에세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p> <p>장학금, 마일리지, 상장은 1월중으로 지급 예정이며, 추후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주셔야 마일리지 지급됩니다.</p> <p>감사합니다.</p>
<p>&lt;자료 14&gt; 상명 프레젠테이션 대회 입상</p>	<p>&lt;자료 15&gt; 상명 에세이 경진 대회 입상</p>

## 5. 향후 계획

저는 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새로운 학기에 본 과목을 수강하며 얻은 ‘Soft Skill’ 들을 ‘현장실습<자료 16-17>’ 을 통해 더욱 실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직에 융화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p>&lt;자료 16&gt; 현장실습 모집 안내문</p>	<p>&lt;자료 17&gt; 현장실습 합격 발표</p>

상기했던 내용처럼 이 강의는 단순히 미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미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작성자 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현대미술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개개인의 가치관과 인문학적 세계관 형성을 도와주는 좋은 강의로서 앞으로도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대 미술사와 이론’ 을 추천합니다.

## 즐겁게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

무용예술전공 24학번 황경민

‘즐겁게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 가될 수 있게끔 하는, 정희정 교수님의 <English Enrichment(Speaking)>를 우수강의로 소개한다. 우리학교 외국어졸업인증의 대체과목이기도 한 이 과목의 키워드는 제목에 드러나듯 ‘즐겁게’, ‘소통’, ‘글로벌 인재’이다. 일주일에 2시간, 크지 않은 강의실에서 어떻게 즐겁게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소개하겠다.

### 1.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영어 말하기를 훈련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이 과목이 외국어졸업인증 대체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인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를 수강할 것을 고려했으나, 강의평가를 살펴보니 분반별 교수님에 따라 강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았고 교재를 통해 기초 문법부터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 수강하지 않았었다.

나는 전형적인 ‘한국 수능 영어 인재’였다. 수능 영어에서는 고득점으로 1등급을 맞았었고 토익도 900점대 점수를 받았었지만, 이는 오롯이 듣기와 읽기에 치중된 능력인 셈이었다. 그리고 수능 영어와 토익에서 출제되는 듣기·읽기 지문 같은 경우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다.

몇 년 전, 언니와 함께 캐나다에 있는 친척을 뵈러 간 적이 있었다. 중학교 때 이미

캐나다에서 단기간 살았었고 꾸준히 실생활 영어를 해온 언니는 프리토킹이 가능했지만 나는 그 때 해외가 처음이었고 외국인과 말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거의 언니만 얘기하고 나는 언니 뒤에 숨어있기만 했었다.

평생 한국에서만 살 거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직접 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를 불러오는지 나이가 들며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다. 직접 영어를 말해보고 소통해보는 경험이 간절했고, 결과적으로 정희정 교수님의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는 나의 영어 소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 2. 강의 정보 및 수업 방식

본 강의는 계당교양교육원에서 개설된 ‘글로벌 언어와 문화’ 영역의 2학점 영어 강의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2시간 강의에서 한 시간은 교수님께서 이론을 설명해주시고, 그 뒤의 한 시간은 조별로 영어 과제를 수행하거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는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실 때는 어렵지 않은 단어를 선정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어듣기가 다소 능숙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수월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2024학년도 2학기에 진행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1주차	Basics of presentation 강의 개괄 설명, 인생 곡선 그리기, 그룹을 지어 자기소개
2주차	Self introduction 발표의 스킬(Posture, Gestures), About Self-introduction
3주차	Resume & Action verbs (추석연휴 대체 녹화강의) About Resume, Resume에 쓰이는 Action verbs
4주차	About job interview Job interview의 구성(Self introduction과 mock interview) General Question vs Specific Question
5주차	About cover letter Cover letter과 Resume의 차이, Cover letter의 구성, Job interview simulation
6주차	Self introduction prep Self introduction prep questions, Soft skill vs Hard skill, Salary negotiation activity
7주차	Self introduction prep Hook 설계와 simulation, Mock interview 답변 구성
8주차	Mid term Presentation 1:1 Self introduction & Mock interview
9주차	About group presentation Group presentation tips, About Survey questions
10주차	Developing survey questions Type of survey questions, Tip of developing/revising survey questions
11주차	Developing survey questions

	Type of evidence, Survey introduction 구성, 1:1 Survey items feedback
12주차	Preparing Group Presentation
	Group presentation structure, 실제 설문조사
13주차	Problem Solution Presentation
	Group Presentation
14주차	Final Exam Review
	Course review(Game)
15주차	Final Exam

수업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English Enrichment(Speaking)은 실제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나 혹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발표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의의 학술적인 목표점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Self introduction(자기소개\_구직에 초점을 맞춤)
2. Resume&Cover letter 구성
3. Mock interview(구직을 위한 인터뷰)
4. Group Presentation Partner와의 협동
5. Survey(설문조사 구성과 통계 및 시각화)
6. Group Presentation(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발표)

즉, 이 강의는 단순한 생활 영어를 넘어서 학생들이 해외에서 구직 &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수행해야 할 요소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 3. “즐거움” 강의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익히는 과정은 많은 경우 지루하고 고단하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기분과 흥미가 크게 영향 받는데,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는 데에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이 강의는 수강하는 학생들 간의 상호소통이 전제되어 있다. 거의 매 주차마다 2명, 혹은 4명으로 그룹을 지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데, 대화의 내용은 단순한 친목 도모에서부터 역할극, 게임까지 다양하다. 수업 1주차에는 종이에 각자 인생 곡선을 그리고 4-5명씩 조를 이루어 조원들에게 자신의 인생 곡선을 영어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2주차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Charades라는 스피드 게임을 진행했는데, Charades는 주어진 낱말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낱말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다. 이는 교수님께서 발표의 스킬에 대한 이론 설명을 진행하신 후, 발표의 스킬 중 하나인 Gesture(제스처)를 직접 활용해보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론에 대한 실습이 재미있는 게임으로 진행되어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Gesture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다음은 Charades 게임을 위해 제시된 자료 중 일부이다.

**Charades: Student A**

In pairs, communicate the following words or phrases to your partner. Do not say anything. Use only body language. Ask your partner to guess what you mean or are doing.

**Student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am smoking.</li> <li>I am tying shoes.</li> <li>Speak louder, please.</li> <li>I am so thirsty.</li> <li>I am playing drums.</li> <li>I am crazy!!</li> <li>I am peeling a banana.</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You're late!</li> <li>No.</li> <li>High five!</li> <li>I have a toothache.</li> <li>OMG! This is so scary!</li> <li>I am figure skating.</li> <li>I am having a hangover.</li> </ol>
--	---

다음은 6주차 수업에서 진행된 “Salary Negotiation Activity” 이다. LF corporation에 디자이너로 채용된 Sujin Kim과 채용 담당자인 Lee Hyeonseok이 연봉, 사내 복지 등을 협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인 1조로 묶인 조원들은 각각 Sujin Kim, Lee Hyeonseok을 맡아 연봉, 복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다음은 활동에서 사용된 Negotiation Guideline이다.

**LF EMPLOYMENT CONTRAC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April 17, 2024, by and between LF Corporation (hereinafter "Employer"), and Kim Sujin (hereinafter "Employee").

**Employment start date:**

**Position Title:**

**Compensation:**  
The monthly salary of the (Position Title) is \_\_\_\_\_ for the first year.  
The annual salary will be increased by \_\_\_\_\_% effective on (date).  
Salary increases will be negotiated to take effect at the beginning of each renewal period (or, specify a date).

**Other Salary Conditions** (e.g. transportation fee, lunch/dinner, laptop/tablet/smartphone, attend fashion shows)

**Benefits** (e.g., insurance, retirement, education support...)

**Work Schedule:**  
The standard hours of work for the "Employee" are \_\_\_\_\_ hours per week.  
The "Employee" will be compensated for work time that exceeds standard hours at a rate of \_\_\_\_\_ their regular hourly rate provided that overtime work is approved in advance.

The "Employee's" usual hours of work will be: \_\_\_\_\_AM to \_\_\_\_\_ PM. Lunch breaks are not paid. Breaks will be scheduled as the work allows and will be no more than \_\_\_\_\_ minutes in a four-hour period.

**Vacation Leave:** The "Employee" is entitled to vacation leave with pa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Years of Service Completed	Annual Leave
1-3 years	
4-6 years	
7+ years	

**Sick Leave:**

Employer agree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position described herein.

Employer Representative Name: Lee Hyeonseok, Hiring Director for LF Corporation

Signature: \_\_\_\_\_

Date: \_\_\_\_\_

Employee agree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mployment position described her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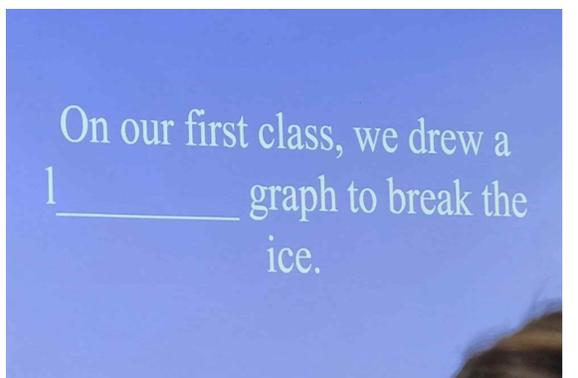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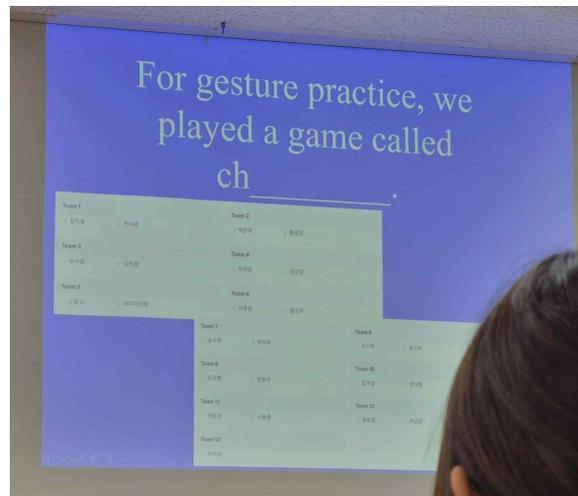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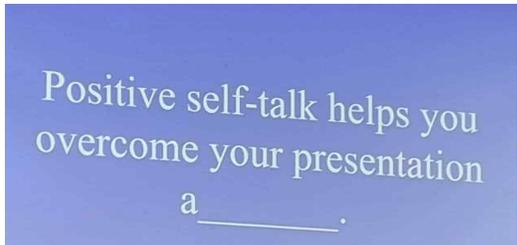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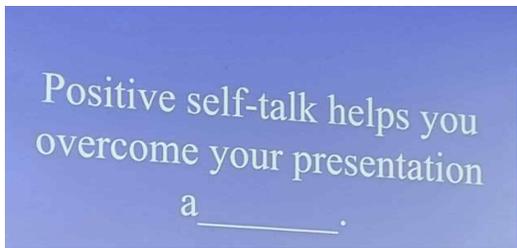
Employee Name: \_\_\_\_\_

Signature: \_\_\_\_\_

Date: \_\_\_\_\_

이 역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연봉, 복지를 협상하는 상황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독특한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즐겁게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영어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주고받고 접점을 찾아 나가며 큰 즐거움을 느꼈다.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즐거운 여정은 기말고사 전주의 마지막 수업에서도 계속되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수업에서는 화면에 송출된 퀴즈를 가장 빠르게 맞히는 팀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스피드 퀴즈가 진행되었다. 이 퀴즈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를 했을 때 드러났던 개인의 선호, 취향과 같은 부분들도 다루어졌다.(OOO가 좋아하는 운동, OOO의 별명 등) 다음 사진들은 실제 수업에서 사용된 퀴즈들 중 일부를 직접 촬영한 것이다. (빈칸은 학생의 이름)



이렇게 게임, 역할놀이 등의 과정을 학생들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수업 시간을 즐겁게 꾸려나갈 수 있었고 영어 말하기를 두려움이나 생소함이 아닌 자신감으로 접근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정희정 교수님께서서는 영어의 유창함보다는 자신감, 일단 시도해보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로 말하기에 임했고 나 또한 영어 말하기를 더욱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 4. “소통하는” 강의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의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교수님과 학생 간 소통이다. 교수님께서 학생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 학생과 교수님 간 소통과 피드백은 매 수업시간 활동마다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Self introduction 리허설 피드백(개인)
2. 중간고사(1:1 Mock interview) 피드백(전체)
3. Presentation을 위한 설문지 피드백(그룹별)

먼저 Self introduction 리허설 피드백은 중간고사인 Mock interview 한 주 전에 이루어진다. Mock interview는 구직자(학생)가 면접자(교수)를 1:1로 만나 인터뷰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모의 인터뷰이다. Self introduction은 본격적으로 interview를 진행하기 전 면접자에게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과 기타 자신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1분 안에 자신의 업무적인 강점과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면접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Self introduction의 첫 부분에는 “Hook” 이라고 하는, 면접자의 주의를 구직자인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가 있다.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Hook을 개성 있게 설계하고, 이 Hook을 포함한 interview 전문을 1분 동안 교수님 앞에서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Hook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비밀로 숨겼다가 실제 중간고사 interview 때 교수님께 공개해도 상관없다. 나의 경우 Hook의 흥미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고사 1주 전 모의 리허설 때는 숨겼고, 실제 중간고사 interview 때 공개했다.(참고로 내 Hook은 노래였다)

리허설 피드백 시간에 교수님은 학생의 잘못된 말하기 및 Gesture 습관, 기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주로 알려주셨다. 이를 토대로 실제 중간고사에서 Self introduction과 Mock interview를 수행할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임할 수 있다. 중간고사 8주차에 1:1 Mock interview를 완료한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개인별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피드백은 사전 공지된 채점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며, 자신이 잘 한 점과 잘 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는 내가 9주차에 받은 Mock interview 피드백이다. 채점 항목과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피드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영어 말하기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 과제 채점 결과

피드백	Name: 황경민		
	Self-Introduction		
	Intro/Hook	4	Impressive hook
	Body	4	
	Conclusion	4	
	Audience Appeal	4	
	Time	4	02:00
	Physical Skills		
	Maintained good posture	3	Sits too close to me, more personal space needed
	Used appropriate gestures	4	
	Maintained good eye contact	3	Ceiling, wandering eyes
	Clear voice, appropriate volume and pace	3	Um.. ah...
	Interview Skills		
	Gave relevant answers	4	
	Answered questions with confidence	4	
	Answered questions with concrete examples	4	
	Answer was authentic and positive	4	
	Used appropriate language and expressions	2	More appropriate expressions required -> try to be in their shoes, short answers Slipping Korean '그'
	Displayed enthusiasm	3	Answers too quickly, too eager to answer, needs to calm down a bit
	Total: 54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는 2명씩 조를 나누어 중요한 Presentation(발표)를 수행한다. 이 Presentation은 문제해결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기획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른 시간에는 설문조사 질문 항목별 종류, 설문조사 질문을 만들 때 주의할 점 등 설문조사를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교수님과의 피드백이 진행되었다.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이 피드백이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과제를 위해 교수님께서 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피드백 시간을, 수업 외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셨다는 것이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겨졌다. 조별로 가능한 시간을 선정하여 교수님 연구실에서 30분간의 자세한 피드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나와 조원은 설문조사를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었고 이는 Presentation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 5. “글로벌 인재가 되는” 강의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의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인재’이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국외에서 취직,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대표적으로 Resume와 Cover letter이다. Resume는 한국어로 ‘이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원자의 약력을 요약해서 보여주며 1page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Resume와 비교되는 것이 C.V인데 이는 교수직과 같이 지원자 수가 적고 높은 자격을 요하는 position에 지원할 때 제출하는 것이다.

Resume를 기술할 때는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아닌 ‘Bulleted Statement’가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나는 OO카페에서 3년간 일해서 하루에 100명의 손님을 응대했다(I worked at OO cafe for 3 years and served 100 guests a day.”가 아닌, “Served 100 guests a day for working 3 years at OO cafe”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하는 식이다. Bulleted Statement는 흔히 “Action verb + Skill + Task = Result”로 구성되며, 문장의 가장 처음에 오는 동사 즉 Action Verb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시로 했던 문장에서는 ‘Served’가 Action verb에 해당한다.

한 페이지의 Resume 안에 자신의 경력, 강점 등을 여러 가지 서술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Action verb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안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Action verb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강의 시간에 연습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실제로 해외 취업을 위한 Resume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래는 강의안에 제시된 Action verb의 예시들이다.

### Planning

Example: Developed & implemented a training program that resulted in a 45% increase in employee satisfaction

Administered	Developed	Formulated	Prepared	Revised
Anticipated	Devised	Identified	Prioritized	Strategize
Commissioned	Evaluated	Observed	Researched	Studied
Determined	Forecasted	Planned	Reserved	Tailored

### Organizing

Example: Coordinated weekly office schedules for 8 employees

Acquired	Cataloged	Designated	Logged	Routed
Activated	Centralized	Designed	Mapped out	Scheduled
Adjusted	Charted	Dispatched	Neatened	Selected
Allocated	Classified	Established	Obtained	Secured
Altered	Collected	Facilitated	Ordered	Simplified
Appointed	Committed	Housed	Organized	Sought
Arranged	Confirmed	Implemented	Procured	Straightened
Assembled	Contracted	Incorporated	Programmed	Suggested
Assessed	Coordinated	Instituted	Recruited	Tracked
Assigned	Customized	Issued	Rectified	Tracked
Authorized	Delegated	Linked	Retrieved	

## Helping

Example: Provided academic support for 30+ at-risk primary school students through comprehensive after-school program

Aided	Bolstered	Eased	Familiarized	Prescribed	Returned
Accommodated	Coached	Elevated	Helped	Provided	Saved
Advised	Continued	Enabled	Interceded	Protected	Served
Alleviated	Cooperated	Endorsed	Mobilized	Rehabilitated	Sustained
Assisted	Counseled	Enhanced	Modeled	Relieved	Tutored
Assured	Dealt	Enriched	Polished	Rescued	Validated

## Communicating

Example: Presented to groups of 30+ transfer students on a weekly basis concerning university policies and procedures

Acted	Composed	Elicited	Justified	Rendered	Summarized
Adapted	Consented	Explained	Lectured	Reported	Supplemented
Admitted	Concluded	Extracted	Marketed	Represented	Supported
Addressed	Convinced	Fabricated	Mediated	Revealed	Surveyed
Allowed	Consulted	Fashioned	Moderated	Sanctioned	Synthesized
Amended	Corresponded	Greeted	Negotiated	Settled	Systematized
Arbitrated	Critiqued	Highlighted	Perceived	Shaped	Tested
Argued	Dedicated	Illustrated	Persuaded	Smoothed	Taught
Ascertained	Defined	Improvised	Presented	Specified	Translated
Attested	Deliberated	Indicated	Publicized	Spoke	Transmitted
Briefed	Demonstrated	Inferred	Queried	Sold	Verified
Clarified	Drafted	Informed	Questioned	Solicited	Welcomed
Cleared up	Dramatized	Instructed	Referred	Submitted	Wrote
Closed	Edited	Interpreted	Reinforced	Substantiated	
Communicated	Educated	Interviewed	Related	Suggested	

## Quantitative

Example: converted files from COBAL to JAVA in order to increase compatibility with current systems

Accounted for	Checked	Dispensed	Grossed	Projected	Tabulated
Appraised	Compiled	Dispersed	Increased	Purchased	Totaled
Approximated	Compounded	Earned	Inventoried	Quantified	
Audited	Computed	Enumerated	Maximized	Rated	
Balanced	Conserved	Estimated	Multiplied	Reconciled	
Budgeted	Converted	Figured	Netted	Recorded	
Calculated	Counted	Financed	Profited	Reduced	

## Getting Results

Example: Increased student participation by 25% over a 6-month period

Accomplished	Constructed	Ensured	Hastened	Minimized	Reduced (losses)
Achieved	Contributed	Excelled	Heightened	Modernized	Rejuvenated
Added	Delivered	Expanded	Improved	Obtained	Renovated
Advanced	Demonstrated	Expedited	Increased	Opened	Restored
Attained	Diminished	Extended	Innovated	Orchestrated	Targeted
Augmented	Earned	Finalized	Integrated	Overcame	Uncovered
Boosted	Eclipsed	Fulfilled	Introduced	Prevailed	
Built	Eliminated	Gained	Invented	Produced	
Combined	Enlarged	Generated	Joined	Qualified	
Completed	Enjoyed	Grew	Launched	Realized	
Consolidated	Enlisted	Guaranteed	Lightened	Received	

## Problem Solving

Example: Streamlined ordering through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y, decreasing wait time from 6-2 days

Alleviated	Conceptualized	Detected	Found	Repaired	Solved
Analyzed	Created	Diagnosed	Investigated	Revamped	Synthesized
Brainstormed	Debugged	Engineered	Recommended	Revitalized	Theorized
Collaborated	Decided	Foresaw	Remedied	Revived	
Conceived	Deciphered	Formulated	Remodeled	Satisfied	

그렇다면 Cover letter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English Enrichment(Speaking) 강의에서는 Resume와 함께 취직을 위한 면접 시 중요하게 활용되는 Cover letter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Cover Letter의 예시가 주어지고 이를 토대로 Job interview도 모의로 진행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진다. 2024년도 2학기 수업에서는 Starbucks Cafe에 구직하는 ‘Sofia Lee’와 인터뷰 담당자인 ‘Jiwon Choi’의 역할을 2명이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직을 준비할 때 Resume, Cover Letter 작성에 있어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또한, 정희정 교수님께서 언제라도 해외 구직, Resume 등 서류 작업 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다.

이처럼 English Enrichment(Speaking)은 즐거운 학습 과정, 교수님과의 소통,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강의이다. 해외 취업 및 Presentation, 영어 Speaking을 연습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적극 권장한다. 혹시나 해외 유학과 학생들의 수강 때문에 노력해도 높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면 그럴 필요 없다. 교수님께서서는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던 영어 유창성보다 그 학생이 얼마나 노력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지를 더 보신다. 나 또한 해외 유학/거주 경험이 없는 토종 한국인이지만, 매 강의 시간마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에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English Enrichment(Speaking)는 단순히 학술적 목표에만 매진 되어있는 강의가 아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시간에 말씀하셨다. 즐겁게 수업을 듣고,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빛날 수 있도록 소중한 인연을 서로 만들어나가길 원하신다. 그렇기에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많았던 것이다. 나는 대학 생활을 조용히 하는 편이었지만 이 강의를 통해 친구들을 여럿 만들었고, 그 중 몇 명은 강의 외적으로도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도 하였다.

즐거움과 영어실력, 소중한 추억을 얻는 데에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용기이다. 참여형 강의를 부끄럽다고 꺼려진다면 아주 잠시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길 바란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강의이다.

## 헌법을 알고 싶다면 기본권과 통치구조

행정학부 22학번 김나현

제가 소개할 우수강의는 김용훈 교수님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입니다.

### 1. 강의 정보

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김용훈 교수님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우수강의로 소개합니다. 본 강의는 기존 헌법 2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며, 헌법의 의의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분야 중 기본권의 의미와 통치구조의 운영 원리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헌법상 통치구조가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나아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학부 2학년 전공선택 과목이며 선수 과목명은 ‘국가와 기본권’ 강의입니다.

### 2. 강의 수강 이유

제가 ‘기본권과 통치구조’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행정학과 지적재산권학을 다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학부의 졸업시험과목이자 기본권과 통치구조 강의의 선수과목인 ‘국가와 기본권’ 강의를 2023년 1학기에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비교적 쉽게 헌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 수업을 통해 어렵게만 느꼈던 헌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저는 헌법 외의

다른 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지적재산권학과를 다전공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전공을 하게 되며 ‘통치구조’라는 행정학의 요소와 ‘기본권’이라는 헌법의 요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기본권과 통치구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목적의 내용처럼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고 싶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 중 최고의 법으로서 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헌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이어질 다전공에 대한 기초와 이후에 이어질 여러 법 수업을 듣기 위해서도 헌법에 대해 알고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3. 강의 내용 및 중간·기말 고사

강의내용은 <표1>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주차	강의소개/헌법의 등장과 역사적 전개
2주차	개별 기본권 학습-언론출판의 자유
3주차	개별 기본권 학습-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주차	정치제도의 일반이론/정부형태론
5주차	국회1 (의회주의, 국회의 조직,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국회의 권한-입법권 & 탄핵소추권)
6주차	국회2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7주차	대통령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권한(국민투표 부의권)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대통령2 (대통령의 권한입법에 관한 권한)
10주차	법원 (대법원의 내부조직, 대법원의 권한(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등))
11주차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위상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이해
12주차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사
13주차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14주차	보강 주 및 강의 정리
15주차	기말고사

<표 1. 주차별 수업내용>

강의는 개별적인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배운 후 정치제도의 일반이론/정부형태론에 대해 학습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강의는 교수님의 PPT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강의의 마무리에는 강의의 주요재인 헌법학(성낙인\_법문사)의 내용을 함께 읽고 밑줄을 그으며 정리합니다.

성적 평가 기준은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출석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는 없고 시험으로만 성적이 결정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1시간 15분으로 진행되었

고 단답형 5문제, OX 5문제, 서술형 1문제, 약술형 1문제였습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답형과 OX문제, 약술형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판례가 나오고 서술형에서는 강의에서 배운 사례에 대한 판례를 직접 조건에 맞춰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기출을 참고하여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강의 추천 이유

### 1) 교수님의 강의력

헌법이라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을 교수님께서 다양한 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줍니다.

### 국회의 권한 - 입법권



Legislation

□ 입법권의 개념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함.

□ 입법권의 특성

입법 = 일반성 · 추상성

일반적 · 추상적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입법의 일반성 · 추상성

원칙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일반 추상성

IF?

예) 파관하담 (만 → 0. 방  
법: 일반성 → 추상성  
(입법) 추상성 → 구체성  
(조치)

형법 제250조 ① 사람을 폭행한 '상명대헌법수강자갑'은 사형에 처한다. → 평등원칙에 위반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판례 13호  
→ 입법권은 수동 필요

<사진 1. 입법의 일반성, 추상성을 파란해골 13호라는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여 설명>

사진 1처럼 만화 캐릭터나, 아이돌, 영화, 드라마 등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를 활용하여 강의의 주제에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 외에도 가벼운 농담을 수업 내용과 연관 지어 해주셔서 수업이 재미있고 이후에 공부할 때에도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또한 시험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및 답변 공유

질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다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23년도 2학기 기본법과 통치구조 수업을 듣는 OO학부 000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 307조 2항이 '허위사실 적시'가 전일일치 합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일일치 합헌'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과장된 표현이 합치되면 이 과장된 표현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보는 것에 대한 합헌인 것일까요...?

네, "객관적 사실과 과장된 표현이 합치되면 이 과장된 표현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보는 것에 대한 합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1항과 2항은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예요. 허위로 다시 말해 거짓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전일일치 합헌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다시 말해 허위가 아닌 사실만을 전달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계속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및 답변 공유

질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다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23년도 2학기 기본법과 통치구조 수업을 듣는 OO학부 000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 307조 2항이 '허위사실 적시'가 전일일치 합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일일치 합헌'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과장된 표현이 합치되면 이 과장된 표현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보는 것에 대한 합헌인 것일까요...?

네, "객관적 사실과 과장된 표현이 합치되면 이 과장된 표현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보는 것에 대한 합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1항과 2항은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예요. 허위로 다시 말해 거짓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전일일치 합헌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다시 말해 허위가 아닌 사실만을 전달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계속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lt;사진 2. 이캠퍼스 질문 및 답변 공유&gt;

사진 2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교수님께 질문하면 이캠퍼스에 답글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강의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강의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해 비교적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수강하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 2)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될 수 있고, 입문하기에 좋은 과목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헌법을 수강하고 다른 법을 배우는 것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판례와 다양한 학설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 읽어보는 판례이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사진도 함께 접하다 보니 단순히 판례를 글로만 읽을 때보다 비교적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다른 법을 배울 때에도 판례를 읽는 것에 익숙해지고 관련 용어나 판례의 문체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처음 입문하거나 법에 대해 기반을 쌓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다만 본 강의는 국가와 기본권이라는 선행 과목이 있어 선행 과목을 듣지 않고 수강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시절 '정치와 법' 수업을 들었다면 기본권과 통치구조 강의를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 정치와 법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교수님께서 강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PPT에 사진이나 예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법을 처음 배우더라도 수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처음 배우거나, 법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또한 헌법은 이후에 공무원이나 변호사, 법무사 시험의 수험 과목이므로 이러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5. 강의 수강 성과 및 느낀점

기본권과 통치구조 수업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PPT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PPT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진과 예시가 있어 해당 사진이 어떤 예시를 위해 들어있는 것인지 미리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됐던 내용이 PPT로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하고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듣는 것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PPT는 사진이 많고 판례 등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시험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PPT를 미리 정리하여 줄글로 읽어보는 것이 도움 되었습니다.

The image shows handwritten study notes on the topic of '헌법' (Constitution). The notes are organized into several sections with diagrams and text. Key sections include:
 

- 헌법 총론의 자유(1)**: Discusses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distinguishing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nd the concept of '자유' (freedom) as a negative right.
- 헌법 총론의 자유(2)**: Explores the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Discusse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including its rol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 저항적 법률의 인정여부와 한계**: Analyz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laws that restrict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considered '저항적 법률' (laws that resist constitutional review) and the limits of such laws.
- 저항적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Discusses the role of the courts in reviewing laws that restrict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concept of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and the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Furth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its rol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사진 3. 필기 정리>

저는 PPT를 읽으며 해당 내용을 줄글로 적고, 관련 사진을 옆에 배치하여 내용과 예시를 기억하면서도 읽고 정리하기 편하도록 정리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PPT로 수업을 진행한 후 강의의 주교재인 '헌법학(성낙인\_법문사)'을 함께 읽으며 밑줄을 그어 정리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부할 때 밑줄 부분을 읽으면 판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해당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2						
3	HAAT0009	기본권보호와통치구조	1전선	3	13.50	A+
4						
5						

<사진 4. 성적>

이러한 공부 방법을 통해 기본권과 통치구조 과목에서 A+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

니다. 전공 수업이라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기본권과 통치구조라는 어려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강의를 통해 기본권과 헌법 기관에 대해 배우면서 판례를 접하고, 판례와 다른 입장의 학설을 접하며 헌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뉴스 기사에서 판례를 접하거나 관련 헌법 용어가 나올 때 이 강의를 듣기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단지 수업에서의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권’과 ‘통치구조’라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강의였습니다.

##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드는 수업: 영문학 강독 2

영어교육과 21학번 이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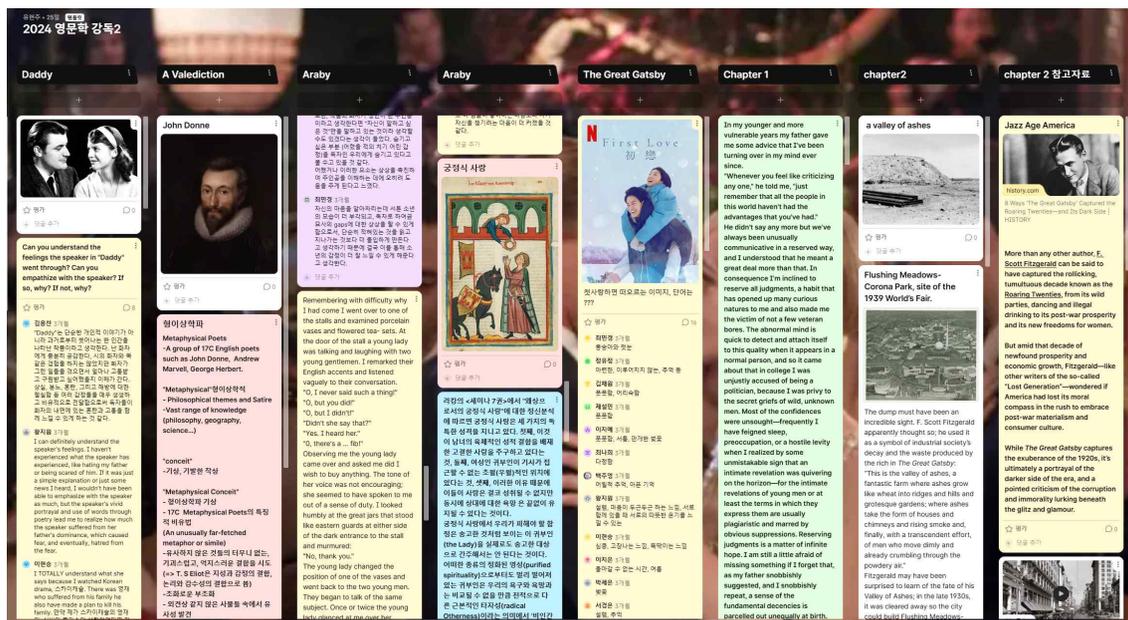
### <도입>

어느새 눈을 떠보니 4학년이 되어 있었다. 3년 동안 항상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듣고 실력을 훈련해 왔던 나는 문득 대학에서 문학, 사학, 철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문의 근본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하고 AI가 성장할수록 인문학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여러 번 듣게 되었던 나는 문학과 철학에 더 많은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친구의 권유로 유현주 교수님의 영문학 강독 2 수업을 접하게 되었고 The Great Gatsby와 같은 유명한 영문학 작품들을 다룬다는 학교 강의평가를 보면서 나는 주저 없이 이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한 지금, 나는 이 수업에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영문학 강독 2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치면서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자.

### <학생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수업>

문학 수업 특성상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누군가의 앞에서 말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유현주 교수님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Padle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신다. 교수님께서 Padlet에 수업 주제와 토론 논제를 수업 전에 미리 올려오시면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은 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아무 때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올린 글을 수업 중에 읽고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활용하여 다시 질문을 던져 주시고, 이에 또 다른 학생들이 답변하며 수업이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은 더욱 올라가게 되고 사고력 또한 향상할 수 있게 된다.



<Flipped Learning(거꾸로 수업, 연습하는 수업,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는 수업)>

영문학 강독 2 수업은 절대로 강의 중심 수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학생들이 미리 연습과제를 해올 수 있도록 숙제를 주시는데, 이 연습과제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습과제를 꼭 해와야 한다.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스키마이다. 이 스키마를 수업 전에 활성화해서 오게 되면 수업 때 집중력이 올라가고 사고력 또한 향상된다는 점이 교육적으로 증명되었다. (김경훈, (2008). 스키마 활성화가 영어 독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1), 404-411.) 실제로는 본시 학습과, 복습보다 중 연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연습 과제 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이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 때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습과제 1

1. What do you think persimmons symbolize in "Persimmons"?
2. What is it that Prufrock wants to do? (Where is he going? What does he want to do when he gets there?) How does he behave? What does he think of himself? Does he or does he not do what he sets out to do?

For the assignment, you may write your thoughts on both questions, or you can choose just one question and write your thoughts on that.

제출 상황

제출 여부	제출 완료
채점 상황	채점됨
종료 일시	2024-09-09 23:59
마감까지 남은 기한	과제 제출이 5 시간 5 분 남았습니다.
최종 수정 일시	2024-09-09 18:53
첨부파일	예습과제1_이현승.docx

제출한 과제 편집

과제 채점 결과

성적	3.00 / 3.00
채점 일시	2024-12-29 13:34
채점자	이현주

## <학생 중심 수업(발표)>

최근 들어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통역량이다. 남들에게 자기 의사를 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발표수업을 통해 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OT 시간에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학생은 그 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현주 교수님께서서는 발표의 부담감을 아예 줄여서 발표 과제를 내주신다. 발표를 못해도 해당 과목에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들어 주시며 친절하게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한다. 이러한 점 덕분에 나는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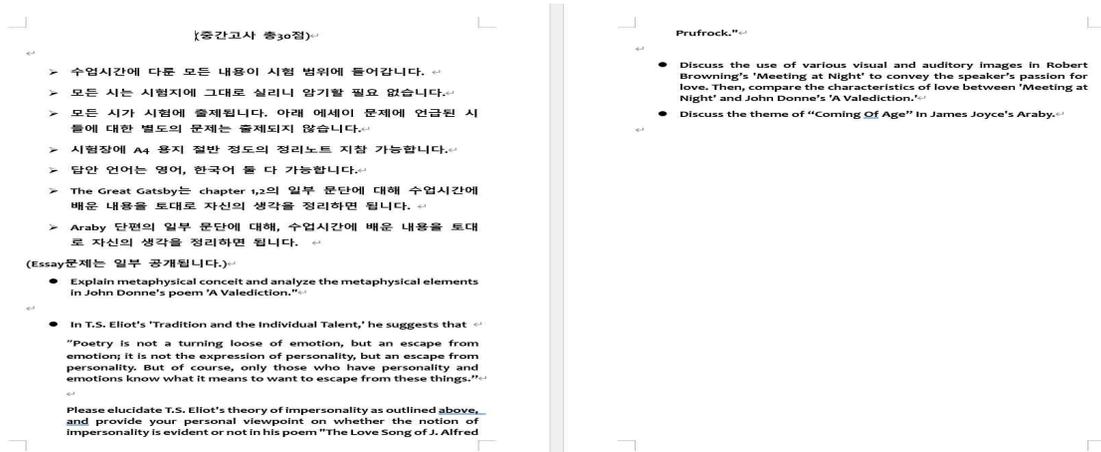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 T.S. Eliot

이현승 | 영어교과과 | leehyeonseung0593@gmail.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n-born, British</li> <li>Modernism</li> <li>Objective Correlation</li> </ul>
--

## <생각하는 수업과 시험(객관식X, 생각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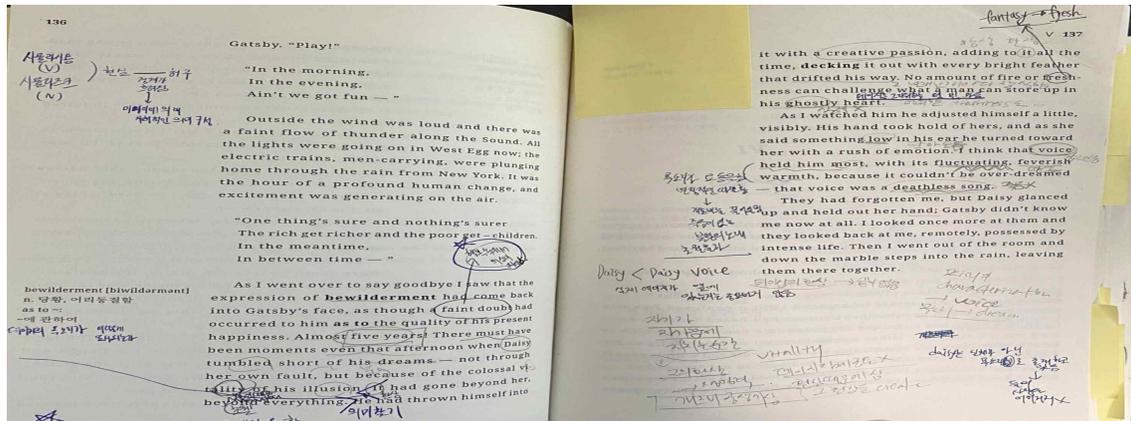
영문학 강독 2 수업을 들으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모든 교수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늘 열려 있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써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암기에 익숙해져서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수업 진행 방식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었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할수록 나의 철학적 생각 능력이 더욱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다음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Explain how the writer uses the expression within and without and present your opinion about this expression.” 이런 유형으로 작가와 내 생각을 연관 지어서 에세이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수님께서도 시험 1~2주 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예상 문제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시고는 하셨는데, 이러한 예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글을 쓰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 <글을 읽는 수업>

요즘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책을 먼저 정리하신 뒤 요약본이 작성되어 있는 PPT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 PPT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방대한 양의 수업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루어야 하기에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받고 공부하면 더욱 편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학습은 책을 읽어 나가며 이루어졌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문학 강독 2 수업은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위대한 개츠비, 욕망이라는 전차 등의 수업 내용을 책 그 자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셨고, 한 학기 수업을 다 듣게 되면 책 몇 권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진 수업을 운영하셨다. 실제

로 PPT로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고 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책을 그 자체로 여러 번 읽고 책의 지식과 내용을 나의 머릿속에 나만의 방식대로 내면화했을 때 더 많은 것들 것 기억에 남고 더 인상 깊은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기분이 들었다.



##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가는 수업>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학생이 첨단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유현주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업과 관련된 영상 자료들을 온라인 E-Campus에 올려 주셨다. 실제로 위대한 개츠비를 책으로 읽었을 때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올려 주신 관련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도 그 영상 자료들을 토대로 글을 써 내려갔더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도 수업이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도 학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온라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 맞춤형 수업>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그와 관련된 실적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수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영문학 강독 2 수업 때 배운 ‘궁정식 사랑’을 배운 뒤 기사가 귀부인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면서도 계속 거리를 두려는 ‘육구 총족의 지연’에 관심이 생겨 이와 관련된 라캉의 연구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수업과 별개로 이러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마침 비평적 에세이 글쓰기 대회가 학교 공고에 올라오게 되었고, 나는 궁정식 사랑과 라캉의 이야기에 대해서 탐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Idolization을 비판하는 비평적 글쓰기에 참여했다. 평상시에 나의 관심사에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 내용이 더해지니 당연히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Idoliz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생겨서 추가로 겨울방학 때에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글을 더 써볼 계획이다.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이보다 더 일상생활 친화적인 수업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	영어교육과	이현*	20211**67	대상
2	비평적			
3				
4				
5				
6				
7				
8				

## <마무리>

사범대학교에서 교육에 대해 매일 배우고 고민하는 나는 ‘학생이 먼저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을 나의 교직 모토로 삼고 늘 어떻게 수업을 구상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나는 교사의 입장에서만 수업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는 것을 이번 영문학 강독 2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교수님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업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자 중심 수업(Learner centered class)을 가장 핵심 가치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셨다.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Need Analysis)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셨다. 덕분에 나는 이 수업 때 배운 ‘궁정식 사랑’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를 바탕으로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내면적 성장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인

---

지적, 정의적인 측면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영문학 강독2 수업을 모든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상적인 교수자와, 적극적인 학생의 열정 이 두 가지가 모여 상명대학교의 모든 학우가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는 학습전략 5가지 Step

생명공학전공 21학번 박여진

### 들어가며

대학교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109학점을 이수하며 평점 4.4/4.5라는 결과를 기록해 왔다. 성적표의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나만의 효과적인 학습전략으로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의 증거이다. 학업을 이어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많은 학습 자료와 시간적 제약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효율과 집중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실천한 학습 방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본 에세이에서 내가 실천해 온 학습전략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 방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더 나은 학습 방향을 모색하려는 학생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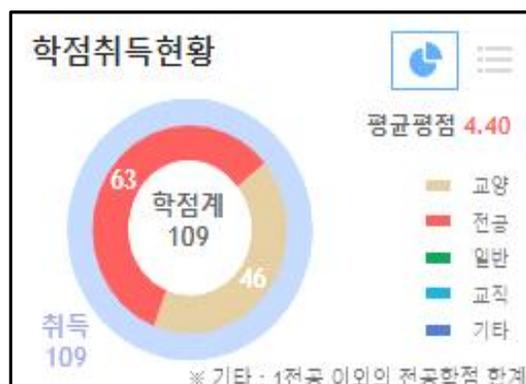


그림 1. 학점취득현황과 평균평점

## 본론

나만의 학습전략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학기별 성적과 장학금 수혜 목록을 통해 그 신뢰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음 사진을 보면, 1학년 1학기에는 4.25라는 나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1학년 2학기에는 이를 넘어서 4.31을 달성하였다. 이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꾸준히 4점대를 유지하며 고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학과 수석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은 경험과, 세 차례의 면학 A 장학금을 받은 경험은 고민을 거듭하며 나에게 맞는 체계적인 학습전략을 바탕으로 한 성과였다. 이 과정과 전략은 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No	학년도	학기	선정학점	취득학점	평균점	평균평균
1	2024	2학기	19	19	82.50	4.34
2	2024	1학기	16	16	72.00	4.50
3	2023	2학기	19	19	85.50	4.50
4	2023	1학기	17	17	76.50	4.50
5	2022	동계 계절수업	3	3	13.50	4.50
6	2022	2학기	16	19	69.00	4.31
7	2021	1학기	16	16	68.00	4.25

그림 2. 학기별 성적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코드	장학금명	장학금명(영문)
1	2024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2	2024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16	학과수석	Top in Department
3	2024	1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4	2023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5	2023	1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6	2021	1학기	교외	학비감면	20576	국가장학2-입학금지원	National Scholarship for Admission

그림 3. 장학 수혜 목록

이제 본론에 들어가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총 5가지 단계에 걸쳐 설명할 것이다. 이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5가지 단계를 모두 차례대로 진행할 경우 학습의 효과가 몇 배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단계를 꼭 함께 실천해 보길 권장한다. 또한, 평범해 보일 수 있는 단계들 속에도 필자의 특별한 노하우와 전략이 담겨 있으니,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읽어보기를 바란다.

##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는 학습전략 5가지 Step

### Step 1. 주 6일 학습 계획 세우기

첫 번째 단계는 시험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다소 당연하고 심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비결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7일 중 6일의 계획만을 세우는 것이다. 1주는 7일인데 6일만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계획은 착실하게 세우지만 매일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계획한 양을 끝내기 위해 급하게 공부하거나, 집중력을 잃어버린 경험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일 중 하루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비워두는 것을 추천한다.

2024년 11월							오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7	18	19	20	21	22	23	
D-21 비판의 역사의 서술	비판의 역사의 서술		과제 DAY	일반역 17. 비판역 1/2	일반역 18. 비판역 1/2 ↳ 보충된 미완료	독본 8. 비판역 1/2	
24	25	26	27	28	29	30	
독본 9. 비판역 1/2 일반역 10. 비판역 1/2	독본 9. 비판역 1/2 일반역 10. 비판역 1/2	독본 9. 비판역 1/2 일반역 10. 비판역 1/2	일반역 17. 비판역 1/2 일반역 18. 비판역 1/2	독본 10. 비판역 1/2 일반역 20. 비판역 1/2	독본 10. 비판역 1/2 일반역 20. 비판역 1/2	독본 11. 비판역 1/2 일반역 21. 비판역 1/2	
12월 1일	2	3	4	5	6	7	
↳ 12월 학습 미완료 독본 11. 비판역 1/2 일반역 11.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독본 9. 10. 독본 일반역 11.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독본 11.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비판 12.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일반역 12. 비판역 1/2	비판 13. 비판역 1/2 일반역 13. 비판역 1/2 독본 10. 11. 독본	일반역 13. 비판역 1/2 일반역 13. 비판역 1/2 독본 11. 독본	
단독 독본 1/2 독본 12. 비판역 1/2	D-DAY	9	10	11	12	13	
단독 독본 1/2 독본 12. 비판역 1/2	오전 11시 생물독성학 기말 오후 4시 생물배양공학	오전 11시 생명과학의 오후 3시 생물배양공학	오전 11시 오후 2시 알고리즘과 계	오전 11시 오후 6시 일반화학 2 기말			

그림 4. 주 6일 학습 계획 예시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치는 요일인 수요일을 비워두고, 미완료된 계획을 보충하는 날로 설정해 두었다.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미완료된 계획을 진도 상황에 맞춰 세모와 엑스로 표시하고, 빨간 글씨로 돌아올 수요일에 적어두고 이행하였다. 이 전략 덕분에 매일 계획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계획을 다 진행하지 못했어도 수요일에 보충할 날이 있기에 조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만약, 수요일까지 미완료된 계획이 없다면, 그 주 수요일에는 과제를 몰아서 처리하기도 했다. 이 전략은 정성스럽게 세운 계획이 미뤄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 Step 2. 교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두 번째 단계는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필기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마음이 잡이 필요하다. 필자는 생명공학과 학생으로, 수업 자료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있고 글보다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수님의 설명을 놓치면 이후 혼자서 학습할 때, 시간이 몇 배로 걸리며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진다. 더욱이, 교수님이 제공한 수업 자료에는 포함 되어있지 않지만 구두로 하신 말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곤 한다. 그림 5와 6은 필자가 전공 수업에서 필기한 학습 자료와 교수님의 설명을 함께 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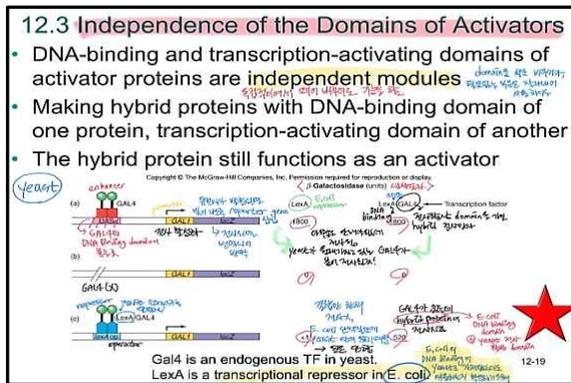


그림 5. 단백질공학 강의 자료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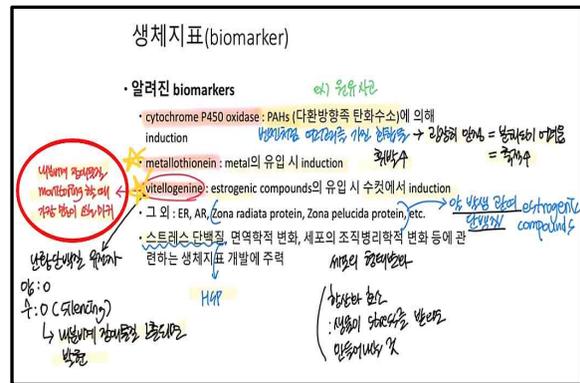


그림 6. 생물독성학 강의 자료 일부

실제로 그림 6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교수님이 구두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다. 복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업 중 놓친 내용은 다시 보충하기 어렵다. 시험 출제자가 교수님임을 염두에 두고, 교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필기하자. 이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Step 3. 스스로가 작은 선생님이 되기

세 번째 단계는 통학 시간이 긴 사람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학습전략이다. 필자가 김포에서 서울로 통학하던 시절, 왕복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내야 했다. 무거운 아이패드를 한 손으로 들고 서서 공부하기가 벅차 다른 방법을 고민하던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나만의 학습전략을 찾아내었다. 바로 교수님이 제공한 수업 자료를 보며 수업 내용을 떠올리고, 이를 스스로 설명한 뒤 녹음하여 통학 시간에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7을 설명할 때, “mRNA를 만들기 위해 intron을 제거하는 Splicing 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snRNP가 참여하면서 시작해.” 처럼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그림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본은 본인이 직접 정리하고 본인 목소리로 설명한 것이기에 기억에 오래 남고, PPT의 그림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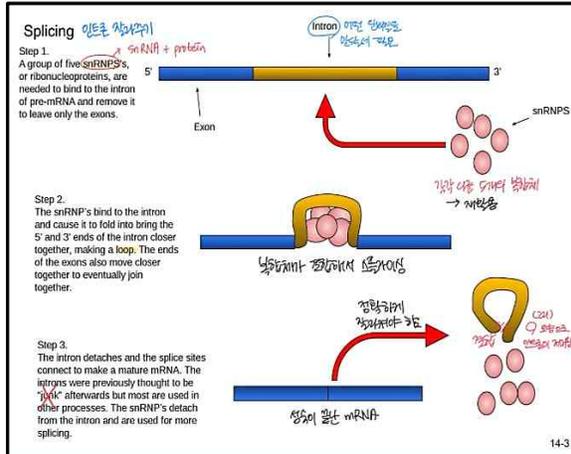


그림 7. 단백질공학 강의 자료 일부 2

<b>*단공 15장</b>	
2024. 10. 14.	26:15
<b>*단공 14장</b>	
2024. 10. 13.	31:44
<b>*단공 12장 마무리 + 13장</b>	
2024. 10. 10.	25:51
<b>*단공 12장</b>	
2024. 10. 9.	24:39

그림 8. 단백질공학 강의를 직접 정리한 녹음본

이 학습전략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다. 녹음본을 들으면서 일시 정지를 눌러, 뒤에 나올 내용을 스스로 말해보는 것이다. 앞에서 그림 7을 설명한 녹음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겠다. “mRNA를 만들기 위해 intron을 제거하는 Splicing 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에서 녹음본을 멈추고 Splicing 과정 3단계를 스스로 설명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서술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므로 손이 아프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무거운 아이패드를 들지 않아도 녹음본과 이어폰만 있다면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어, 통학 시간에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 Step 4. 한 단원을 단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수업 자료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면, 네 번째 단계는 광범위한 수업 자료를 각 단원당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다. 한 단원당 50여 페이지나 되는 PPT를 단 한 페이지로만 요약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다 보면,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만으로 구성된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요한 요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그림 9는 필자가 실제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 40여 페이지의 PPT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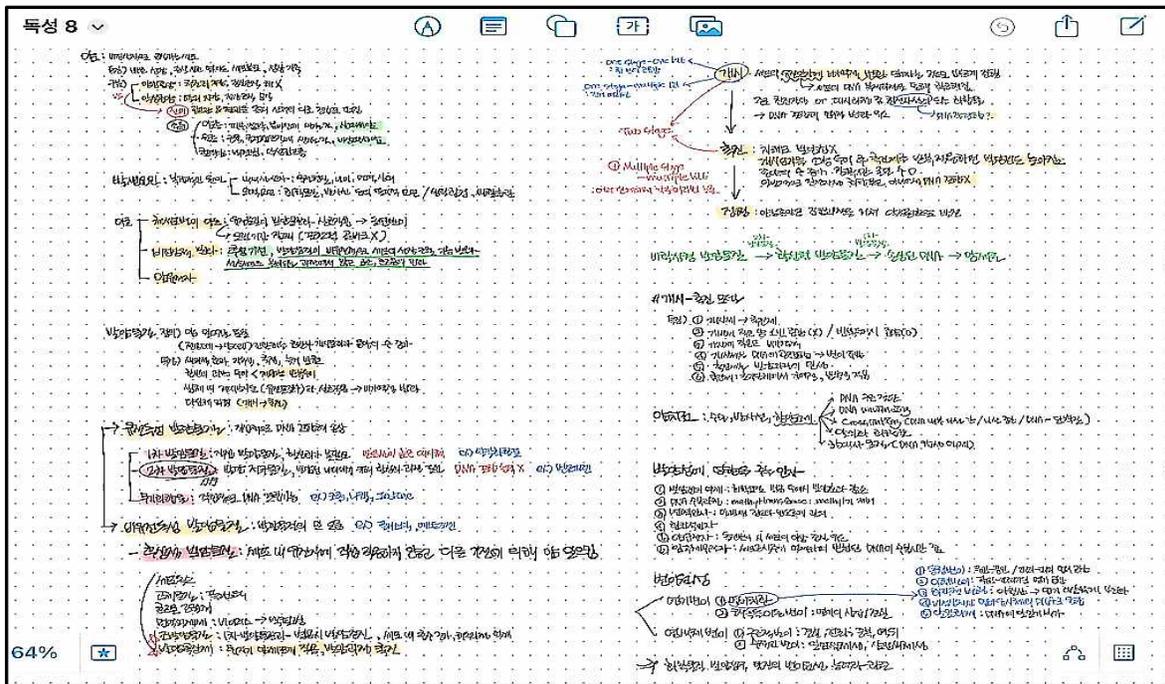


그림 9. 한 페이지 요약본 예시



그림 10. 빈칸 만들기 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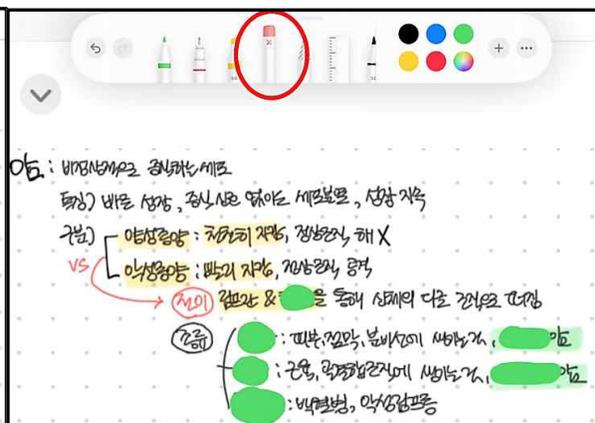


그림 11. 빈칸 만들기 과정 2

네 번째 학습전략 또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10과 11은 앞서 첨부했던 한 페이지 요약본의 일부이다. 요약본을 충분히 학습한 후,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빈칸을 만든다.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편집-그리기-색연필’을 선택하여 글씨 위에 색을 칠하는 과정으로 쉽게 빈칸을 만들 수 있다. 위 그림에서는 초록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빈칸을 만들었다. 빈칸을 만든 후에는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 하나씩 지워가며, 본인이 생각한 답과 맞는지 비교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 학습전략은 중요한 내용을 빈칸으로 만들고 채워 가는 과정에서 기억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빈칸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Step 5. 백지 복습으로 기억의 빈틈 메우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에서 만든 한 페이지 요약본을 백지에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백지에 공부한 내용을 온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백지가 점차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림 12에서 검은색 글씨 및 파란색 글씨는 필자가 백지에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쓴 내용이며, 빨간색 글씨는 첨삭 과정을 통해 수정한 부분이다. Step 3과 4의 학습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이라 해도, 생명공학과 시험처럼 정확한 용어 철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2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첨삭 과정을 통해 필자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한 예시를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잡을 수 있다. 백지 복습은 본인이 어렵듯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을 수 없으니, 기억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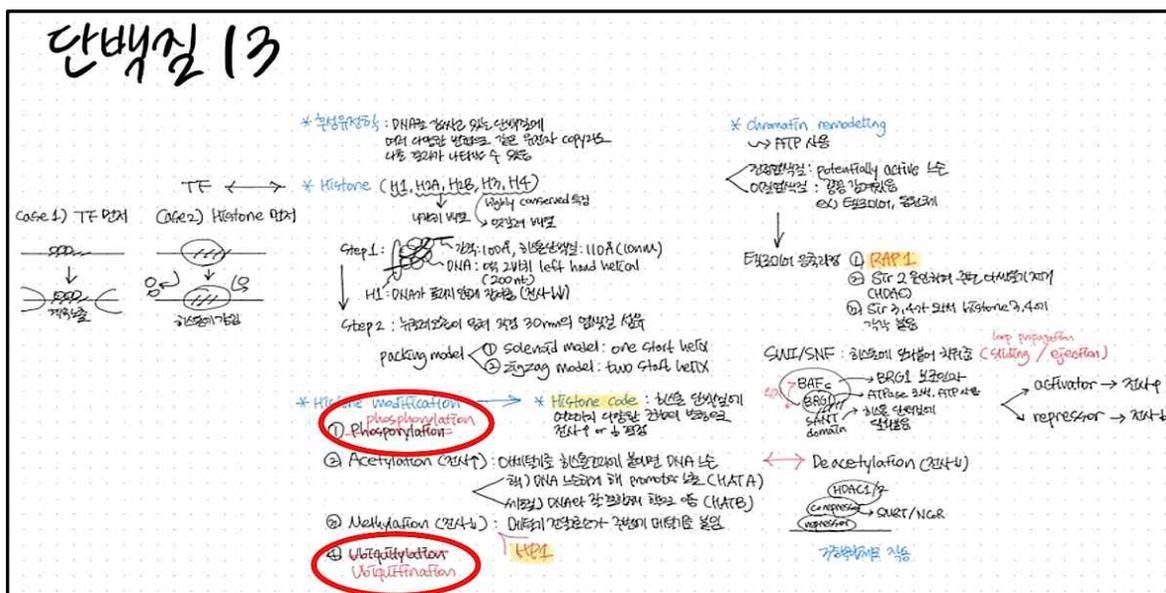


그림 12. 백지 복습 예시

### 번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지금까지 소개한 학습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이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이 설계한 학습전략 중 특정 단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은 단지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부

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음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자. 넘어졌다는 사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맺음말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고민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학업 성취를 넘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얻게 된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많은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 배움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비된 사람에게 성공을 준다. 다양한 학습전략을 시도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 비효율적인 공부, 시간은 없는데 곧 시험!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교육학과 23학번 안지혜

모든 것은 나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에게 맞도록 실현해라

### 목차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2. 생각하고 생각해라.
  3. 학습 스타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필기하고 계획하는 게 좋을까?)
  4. 나의 학습전략은?
  5.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큰 기회이다.
  6.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 \*잠을 굳이 자야 할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 들어가기 전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고민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공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나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자.

생각해 보자 정말 나는 그것을 성공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집념, 의지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의 강도에 따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나랑 맞지 않는 공부법으로 열심히 외우고 시험을 봐도 머리에 남지 않았던 경험이 이에 속한다. 이는 의지에 문제가 아닌 활용의 문제이다. 집념 즉 의지가 힘의 원천임을 깨닫고, 이를 어떻게 잘 실현하고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부터 집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을 통한 학습 전략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 본론

###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상 학습전략, 공부법 이 모든 것은 목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이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지와 집념에 따라 목표가 실현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지만,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한다. 왜냐,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의지력에 따라 공부만 하는 사람 혹은 공부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가 학습하기 전, 배우기 전 이를 왜 해야 하는지 필요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는 반드시 진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도 좋다. 다만 구체성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예를 들어 시험 잘 볼 거야보다 저번보다 잘 보기 위해 매일 2시간씩은 ~과목을 공부할 거야. 대외 활동할 거야보단 ~분야에~대외 활동을 찾아서 지원서를 써볼 거야 등 단순히 할 거야보단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거야의 목표를 설정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것 운동, 독서, 또는 문화 활동 등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목표를 설정해 보면 좋을 것이다. 다만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하나의 꿈으로만 남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를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의지는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다.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의지와 집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이 생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표를 왜 설정하였는지, 이를 실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 2. 생각하고 생각해라.

앞서 말한 것처럼 공부에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력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맨날 의지가 약해졌기에 무엇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이때 내가 의지를 잡기 위해 실천한 것을 공유해보려 한다.

1. 적당한 불안과 걱정을 가져라
2. 싫어하는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3. 라이벌을 만들어라
4.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
5. 뭐든지 시작해라

1. 적당한 불안과 걱정은 나를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와 ‘이러다가는 안 돼.’의 생각을 지닌 사람의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 물론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문제가 되겠으나 어느 정도의 불안과 걱정은 의지를 발현시키고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실패와 부족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부족함을 경험하고 보완하며 어려운 길을 가면서 걱정과 불안을 통해 성장하고 더 큰 의지를 지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만의 간절한 것을 찾게 될 것이라 믿는다. 혹시 지금 고난의 길에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성장의 길이 넓어진 것이다.

2. 나의 현재 혹은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일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나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선의의 라이벌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남이 열심히 하면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라이벌과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자. 라이벌과 함께 공부해라. 라이벌을 만들어 내기해라. 승부욕 때문이라도 질 수 없을 것이다.

4.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룬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지금의 노력으로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5. 생각을 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은 문제다. 뭐든 시작이 어렵다. 어렵고 많고 하기 싫어도 그냥 시작해라. 귀찮음을 이긴다면 그 이후에는 뭐든지 쉬워질 것이다. 시작하고 끝을 내는 과정에서 나를 더욱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내가 부족했던 것은 학습하는 방법이었다.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중해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공부한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기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다. 그런 내가 나만의 학습전략을 세우고 실행시켜 수석을 하고 이



### 3-1. EDT 학습유형 진단을 시행하자!

EBS에 로그인만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검사이다. 나의 학습 방법을 아는 것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자. 사고 유형, 학습 성격, 행동 조절 등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준다. 나의 학습 스타일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에 맞는 학습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 이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녔는지도 알려준다.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공부가 잘 안된다면 검사를 통해 나의 학습 스타일을 찾자. 실제 내가 시행한 결과를 보여주자면



**Sherlock Holmes**  
**설록홀즈형**

안\*에 학생의 학습스타일은 분석적 사고유형, 사회지향적 학습성격, 이성적 행동조절의 특성을 가진 설록홀즈형으로 분류됩니다.

**분석적 사고유형**  
세부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명확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단서와 증거에 기반하여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설록 홀즈와 같이 전체를 이루는 각 세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습자입니다.

**분석적 사고유형**  
세부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명확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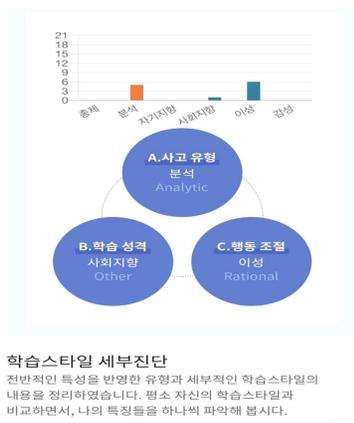
세부적인 단서와 증거에 기반하여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설록 홀즈와 같이 전체를 이루는 각 세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습자입니다.

**사회지향적 학습성격**  
공부의 이유와 방법을 "타인"과 연관 지어 생각합니다.

설록 홀즈는 의뢰인의 궁금증과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건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설록 홀즈와 같이, 학습의 결과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가치를 충족시키려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습자입니다.

**이성적 행동조절**  
냉철하고 체계적인 자기관리로 공부에 집중하는 학습자입니다.

설록 홀즈는 감정이나 직관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 논리적인 사고와 철저한 관찰 및 증거수집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설록 홀즈와 같이 이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습자입니다.



**A. 사고유형**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총체 wholistic VS 분석 Analytic

학습 사고유형의 전반적인 특성은 '분석형(Analytic)'이며, 전체 내용을 잘게 쪼개어 구체적,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학습지향성 : 이해학습 VS 지식학습**

**지식학습 ★★☆☆**

**1. 학습특성**  
학습지향성은 공부의 목표에 따라, "나만의 지식으로 안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해학습과 "주어진 지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한 지식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지식학습 유형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는 학습자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때,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학습자료를 꼼꼼하게 탐독하기
-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
-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2. 장점**

-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억한다.
-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3. 단점**

- 세부내용에 치우쳐 전체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 지식을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

**4. 추천학습전략**

- 학습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입니다. 주어진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기억하는 지식학습이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 (장점 강화하기) 평소 잘 활용해 온 지식학습 방식으로 공부를 더욱 잘 하기 위해, 핵심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공부한 후 스스로 시험문제를 내보고 예상답안을 만들어 학습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보완하기) 다만, 학습내용을 장기간 확실하게 내 것으로 굳히기 위해 학습내용을 나만의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공부한 책을 보지 않고 내가 이해한 것만을 떠올리면서 노트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정보처리 :**  
**동시학습 VS 순차학습**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습계명**

- 1. 주말은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자.**  
연구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하여, 1시간 후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의 정보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일 복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한 후 1주일 뒤에 복습을 하면 1달 이상 기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 2. 복습은 문제를 먼저 풀고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퀴즈가 기억에 효과적인 현상을 '시뮬효과'라고 합니다. 복습을 할 때에는 공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뒤집어 보는 것이 보다 오래 기억을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 3. 공부 내용을 '나'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자.**  
'나'와 관련된 정보는 머릿속에 쉽게 기억됩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공부할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당연히 비논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결과만 제시한 것인데 이보다 더 많이 유용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에 꼭 한번은 검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상명대 상담센터에서도 학습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이 있다면 꼭 검사해 보자.



2024-09-01 09:00 ~ 2025-02-28 18:00	진로검사	더보기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진로에 대한 흥미	0	학생상담센터	진로
2024-09-01 09:00 ~ 2025-02-28 18:00	학습검사	더보기	학습에 대한 학습유형, 자기조절수준을 존	0	학생상담센터	학습
교육 목적 및 개요	학습에 대한 학습유형, 자기조절수준을 점검하여 학습전략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샘물 -> 비교과 프로그램 클릭 -> 학습검사 신청

### 3-2. 공부계획과 필기법을 바꾸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존재한다. 나의 학습 유형에 따라 환경과 필기법, 또 공부 계획을 바꾸어 보자. 나의 유형에 맞도록 바꾼다면 전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부터 내가 사용한 공부 계획, 필기 패드를 공유해보겠다. 이는 앞서 말한 EDT 검사에 없는 것이다. 이 공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노트필기>

##### [삼색노트 정리법]

감각-순차 학습자들은 노트 정리를 할 때 차례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때 세부 사항을 책처럼 그저 나열하기보다, 삼색 볼펜을 활용하여 노트 필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목차MAP]

감각형은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암기하기를 선호하고, 총체형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파악하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충돌되는 두 가지 유형을 절충하는 노트 정리법이 바로 목차 MAP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코넬 노트 정리법]

코넬 노트는 작성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①②는 수업 중에, ③④는 수업 후에 작성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순차형에게 이처럼 작성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노트 정리법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전체적 흐름을 기억하기 쉽고, 내용을 구조적·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총체형 학습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인드맵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이 점은 직관형 학습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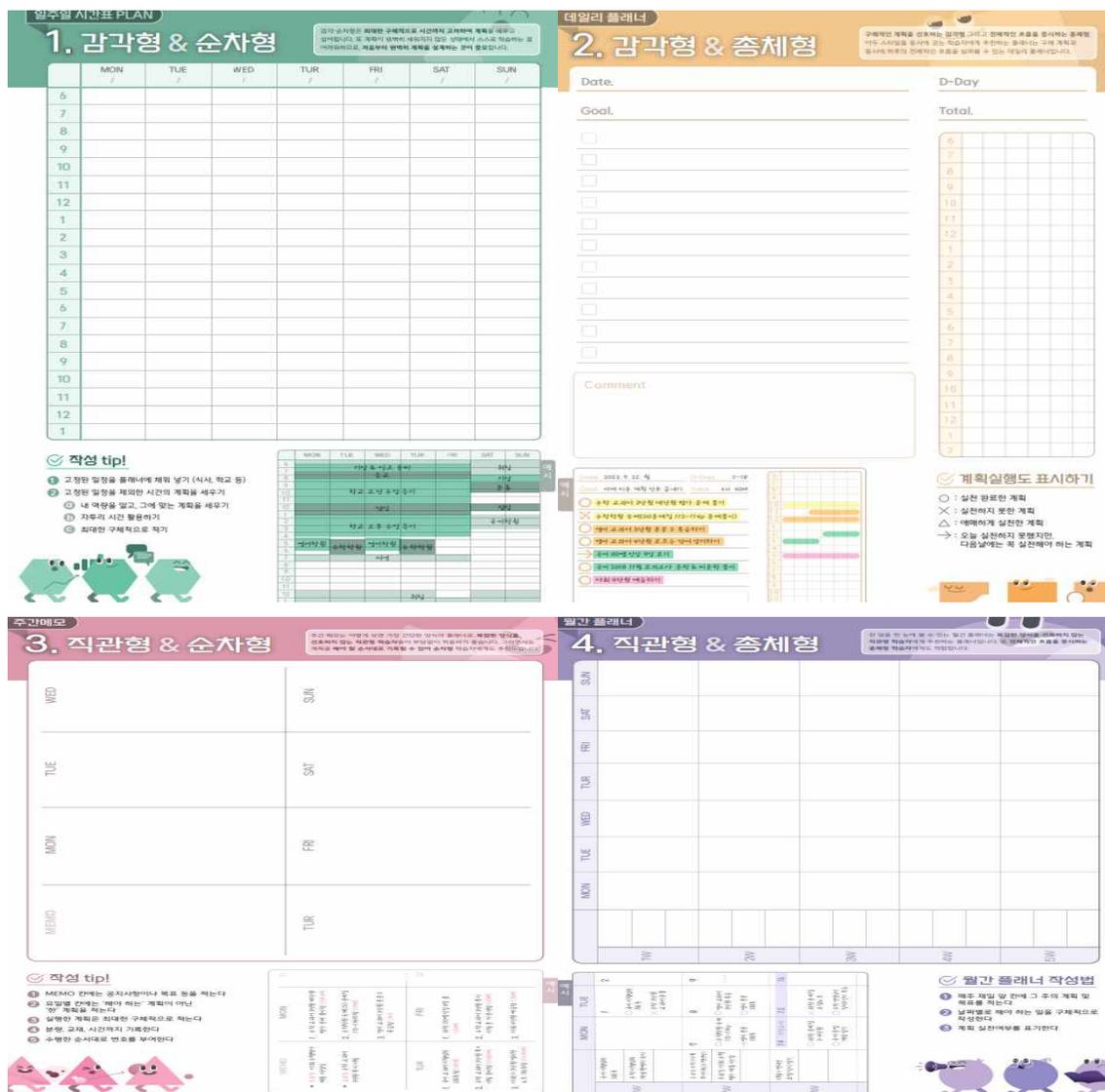


### [주간메모]

주간 메모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양식의 플래너로, 복잡한 양식을 선호하지 않는 직관형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을 해야 할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어 순차형 학습자에게도 추천 드립니다.

### [월간 플래너]

한 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간 플래너는 복잡한 양식을 선호하지 않는 직관형 학습자에게 추천하는 플래너입니다. 또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총체형 학습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나의 학습 유형까지 알았다면 이제 내가 느끼기에 공통으로 효과 있는 나만의 학습전략을 공유해보려 한다. 암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 곧 시험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나의 학습전략은?

### 4-1. 읽어라

외우려 할 필요 없다. 그냥 읽어보자. 시간이 없어서 처음부터 외우려고 글을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내용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냥 친구가 편지 쓴 것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일단 넘어가라 이걸 공부가 아닌, 그냥 이야기인 것이다.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보자. 2~3번 읽었으면 어느 정도 흐름과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 4-2.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라

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찾아보자. 여기에서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찾기 위해 검색해라. 모르는 것을 체크한 후 간단히 검색해서 뜻과 의미를 이해해라.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챗지피티, 뤼튼 등에 물어보고 한 번 더 찾아봐라 인공지능이 매우 똑똑하나 틀린 답을 알려주기도 한다.

### 4-3. 이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라

이번에 공부하고 외우겠다는 의지로 내용을 읽어라. 정말 중요하다. 단순히 흐름과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나 시험장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단답형, 논술의 문제는 틀릴 수 있다. 객관식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그냥 읽은 후 외우기 위해 읽어라. 머리에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쉽게 머리에 들어올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것에 형광펜 밑줄 별표 등 나만의 표시를 반드시 만들어라. 마지막 총정리 할 때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업을 들을 때 중요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듣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4-4. 말해라. 그리고 표현해 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정말 머리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는 지표이다. 그 순간 이해했다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실제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이든 상관없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면서 어느 정도 외웠는지 확인해 보자. 이때는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듯이 말하면 더 효과적이다. 단순히 암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잘 외워진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 기억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말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는 안 외워졌던 것을 써보라 마인드맵, 나만의 단어로 뭐든지. 내가 그 흐름과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써보아야 한다. 특히 논술시험에는 써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4-5.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보자

이건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시행했던 방법이다.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의 빈칸을 만들고 꾸준히 풀어보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다면 서서히 빈칸을 늘려라 빈칸이 뚫린 부분만 기억할 수 있기에 마지막 총정리에는 거의 모든 곳을 빈칸으로 만들고 풀 어라. 귀찮을 수 있으나 시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공부다. 하루에 몰아서 풀지 말고 나누어서 푼다면 더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4-6.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을 훑어봐라

머리에 다양한 지식이 들어와 헛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해 한다는 느낌으로 읽자. 마지막으로 머리에 완전히 들어올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봤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한 내용이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 때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다.

The image shows two side-by-side screenshots from a mobile application. The left screenshot is a testimonial from a user named '경례하는 프로도' (Gyeongrye-haneun Prodo). The text expresses gratitude for a 10-week course on the '공부법' (study method), mentioning that the user's study habits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y were able to complete their course preparation more efficiently. The user also mentions that the course helped them set clear goals and break them down into smaller, achievable steps. The right screenshot is a '장학금 수혜 확인서' (Scholarship Receipt Confirmation) from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It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학년도/학기	학년	장학금명	금액(원)	비고
2024/1	1	학과수석	3,366,000	
2024/1	2	공과(생물부서)	1,500,000	
2024/2	2	학과자석	2,356,200	

Below the table, it states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사실을 확인합니다.' (We confirm the scholarship receipt status as follows.) and '2025년1월01일' (January 1, 2025). The university name '상명대학교' and the word '총장' (President) are also visible.

#### 5.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큰 기회이다.

지하철, 버스, 씻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등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나 역시 5시간 통학하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지하철, 버스, 가만히 있을 때 등 나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본다. 오히려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아무 자료가 없을 때가 진정으로 내가 모르는 것, 헛갈리는 것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공부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6.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다. 실패는 성장의 핵심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당당히 도전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효능감을 갖

자.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포기도 실행해보고 포기하자.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 도전하지 않는 것은 큰 후회를 가져온다. 나를 믿고 도전하자. 도전 자체가 나에게 큰 경험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자! 도전은 굉장히 어렵지만 멋진 것이다!

#### \* 잠을 굳이 자야 할까? 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시험 전날 밤을 새운다. 그렇지만 잠을 잘 때 우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오히려 전날 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음날 일어나서 외우면 반드시 외워진다. 계속 외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잠을 자자. 공부는 컨디션에 따라 조절된다는 것을 인지하자. 꼭 밤을 새워야 한다면 반드시 2시간은 자자. 아예 안자는 것은 오히려 머리가 굳을 수 있다. 운동은 나의 머리를 환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 피곤할 때, 집중이 안 된다면 공부를 멈추고 걷자. 20~30분 걸으면서 바람을 쐬거나 잠깐 친구랑 이야기하며 걷자. 걷고 나면 다시 집중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운동과 공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공부가 곧 체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자.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른다면 건강과 공부를 잡을 수 있다. 평소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운동하자. 공부하면서 체력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낀다. 나도 요즘 일주일에 3번 뛰기, 계단 운동을 한다. 운동 시간이 없다면 지하철역, 집, 혹은 학교를 갈 때 계단을 이용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1년 동안 4.5, 그 뒤에 숨은 나만의 학습법

경영학부 23학번 김서영

### 서론

스무 살, 대학교에 입학한 기쁨을 만끽하고 자유로운 생활에 금세 적응하며 노는 것에 열중한 채 학업은 뒤로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성적은 4점 초반대로 마무리하였고, 미세한 차이로 장학금을 놓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은 2학년이 되면서 저의 동기부여이자 다짐이 되었고,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는 결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영학부는 응용보다 암기 위주의 학습이 요구되기에 이 특성에 맞춰 2학년 동안 공부법을 탐구하였습니다. 저만의 학습 비결로 1학기에 학점 4.5를 달성했고, 2학기에는 이를 유지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1학기에는 학습 습관을 탐색하며 적응기에 머물렀다면, 2학기에는 이전 학기를 기반 삼아 모든 과목의 A+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발전된 학습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천한 학습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요구되는 학우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공부 전략들이 다른 학과의 학우분들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학기성적조회							금학기성적조회						
조회 학번/성명 * 금학기정보							조회 학번/성명 * 금학기정보						
수강신청학점계 (평점평균반영)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100점 환산점수 석차 /							성적집계내역 수강신청학점계 (평점평균반영)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100점 환산점수 석차 /						
성적 목록 [ 8 ]							성적 목록 [ 7 ]						
※ 주의 : P/F교과목은 신청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됩니다. (단, 미입력 강좌는 포함)							※ 주의 : P/F교과목은 신청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됩니다. (단, 미입력 강좌는 포함)						
학기	교과목명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학점	등급	학기	교과목명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학점	등급
2학기	인적자원관리	HAAE0006	1	1전선	3	A+	1학기	생산관리	HAAE0010	3	1전선	3	A+
2학기	소비자행동	HAAE2202	4	1전선	3	A+	1학기	회계원리	HAAE1122	1	1전선	3	A+
2학기	조직행동론	HAAE5004	1	1전선	3	A+	1학기	마케팅	HAAE2131	1	1전선	3	A+
2학기	경영정보시스템	HAAE9003	1	1전선	3	A+	1학기	ICT융합비즈니스개론	HAAE9215	2	1전선	3	A+
2학기	마케팅커뮤니케이션	HAAE9223	1	1전선	3	A+	1학기	4차산업혁명과학기술학	HALF9377	1	교선	3	A+
2학기	러시아어입문	HALF9393	2	교선	2	A+	1학기	부아권력의교환	HALF9418	1	교선	3	A+
2학기	현대사회와의사결정	HALF9407	1	교선	3	A+	1학기	바이오헬스진로설계	HAXA0001	1	일선	2	P
2학기	문화다양성과글로벌비	HALR1041	3	교선	2	A+							

◁림 1> 2024년 1학과 2학기 성적표

##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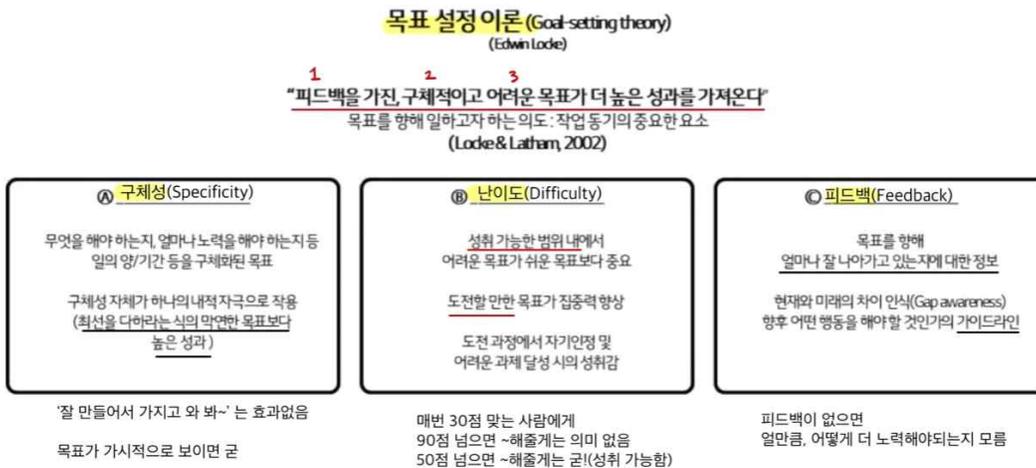
### 1. 입으로 말하며 외우는 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암기 과정에서 입으로 말하며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회 독 시에 학습 내용을 허공에 대고 소리내어 말하며, 그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페이지의 소제목과 내용을 짝지어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눈으로만 읽고 넘기는 것보다 기억에 더 깊게 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공부법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으로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회독 후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암기되지 않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복하며 빈틈을 채워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습을 가능한 한 빠른 주기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2~3일 주기로 복습하였으며, 짧은 복습 간격 덕분에 기억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학습할 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복습할 때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 중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세세한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말하며 외웠습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외웠으며 점차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복습하면서 모든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 2. 효율적으로 수업 필기하기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필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말처럼 모두가 쉽게 알지만 실제로는 가장 까다롭고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자세만 잘 유지된다면 어떤 학습법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녹음으로 듣기보다는 수업 중에 바로 필기하는 것이 기억에 더 잘 남고, 공부할 때도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PPT 내용이 요약돼 있거나 함축적일 경우에는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예시는 반드시 듣고 필기해야 합니다. 예시는 이론과 연결되어 나중에 공부할 때 기억을 회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림 2> 조직행동론 필기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위 사진처럼 간결하게 주요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필기하면 압기 부담이 커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가려내어 간단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곧바로 필기하는 습관을 들여 수업 중에 놓친 내용은 미루기보다 쉬는 시간이

나 공강을 활용해 녹음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있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공부가 지연되고 놓친 부분을 기억해 내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시간과 공강을 활용한다면 놓친 부분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내용을 놓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필기를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 3. 시각적 기법 활용하기

#### 메시지가 인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3/6)

• 일면적(단면적) 주장과 양면적 주장(One- versus two-sided)

- 일면적(단면적) 주장 : 단지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마케팅 메시지

- 양면적 주장 :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메시지

- 예) 기침약 광고 : 맛 vs. 효과  
맛은 쓰지만 효과는 좋아줍니다!  
빨리 낫고싶은 사람에게 효과적

- 양면적 주장이 효과적인 상황

- 소비자들이 이미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나 실패를 기반으로 발전된 것이 지혜의 새겨놓은 것
- 소비자들이 경쟁기업으로부터 강한 반대 주장에 노출되고 할 때 경쟁기업보다 빨리 미리 타도하기
- 일반적으로 결정적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일 경우에만  
상표에도 대한 긍정적 영향  
○ 긍정적 속성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동  
Ex. 카레야 없는데 속삭이 말하면 연드가 별로입니다

#### 저-노력 하에서의 태도의 인지 기초(2/2)

• 저-노력 하에서의 휴리스틱스(heuristics, 발견적 학습)

- 저-노력 하에서 소비자들은 쉽게 적용하고 깊은 생각이 필요 없는 경험 법칙을 형성함으로써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예) 잘 알려진 브랜드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을 것이다.  
세계 구매 - 일일이 다 비교하기 귀찮아 유명한 브랜드 선택

• 빈도(frequency) 휴리스틱스

- 지지주장의 빈도에 기초하여 신념을 형성

- 소비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 경우 제품에 대한 강한 신념 형성 가능

- 진실 효과(truth effect)

- 단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믿게 되는 효과

해리스가 트럼퍼를 역전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정말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언론이 가지는 막강한 힘, 진실 효과

5 | 22

6 | 8

#### ◁림 3> 소비자행동 필기 중 도구 활용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도형과 형광펜 색깔, 밑줄 등의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단어나 개념에 표시하고, 부정적인 단어나 개념에는 세모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긍정적인 개념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부정적인 개념은 더 신경 써서 다시 보게 되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모 표시는 개념이나 이론의 명칭에 표시하여 추후 복습할 때 개념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 SM과 판매(영업) 및 마케팅 활동

➢ 소셜 CRM (Social CRM)

- 소셜 CRM은 동적인 SM 기반 프로세스임 : 기존 CRM의 구조화되고 통제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고객과 기업이 서로 Value Co-Creation 하도록 관계를 만들어 성공함
- 기업과 고객 관계는 양쪽 모두 콘텐츠를 생성/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 변화; 각각의 고객들은 그들 자신과 기업과의 관계를 조정; 기업이 일방적으로 고객을 통제할 수 없음 (고객을 단순 Consumer가 아닌 기업과의 영업/판매 Collaborator로 봐야 함)  
예) 기업(직원)이 전통적인 마케팅 촉진 형식 외에 SNS, 블로그, 토론방, FAQ, 사용자 리뷰 및 평가 사이트 등 제공  
↔ 고객은 콘텐츠를 검색하고, 자체적으로 검토/의견 제공, 추가 질문, 사용자 커뮤니티 생성 등 수행
- 전통적인 CLTV(고객평생가치) 측정방법과 다르게 적용: 예) 효과적인 SM는 평가, 파워 블로거 고객, 인플루언서(influencer) 고객은 연간 1,000만달러 구입하는 중요한 고객보다 더 많은 영향력 있음  
↳ 인플루언서 유형 다 다양함 참조

➢ P2P(Peer to Peer) 판매 : 예) 고객들의 상품평(사려 깊은 장문의 리뷰, 진실성 있는 리뷰 등)이 좋은 상품을 고객들이 산다!

➢ 기업들은 전통적 방식에서 > 개방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역동적 소셜 CRM 프로세스 (& P2P 판매)로 전환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EAI(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시스템 - 필요성 및 정의

EAI 시스템

< EAI의 필요성 >

- ✓ 현실적으로 ERP 시스템을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수 없음; 기존의 시스템을 ERP로 옮기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일
- ✓ 정보 사일로 문제는 어느 기업에서도 존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ERP 대안으로 EAI 구축

•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EAI)

-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조합
- 다음 기능을 수행
  - 연결 소프트웨어(EAI 서버 S/W)와 시스템의 신규 계층(EAI 인터페이스)을 통해 고립된 시스템의 연결
  - 기능적 애플리케이션을 "현재 상태"로 두면서 상위 계층에서의 통합 : 기존 시스템 변경 최소화
  -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공유와 전송 가능; 통합된 정보 제공
  - ERP로 점진적 이동 : ERP로 바로 변화하는 것만큼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사 ERP 장점 구사

#### ◁림 4> 경영정보시스템 필기 중 형광펜, 밑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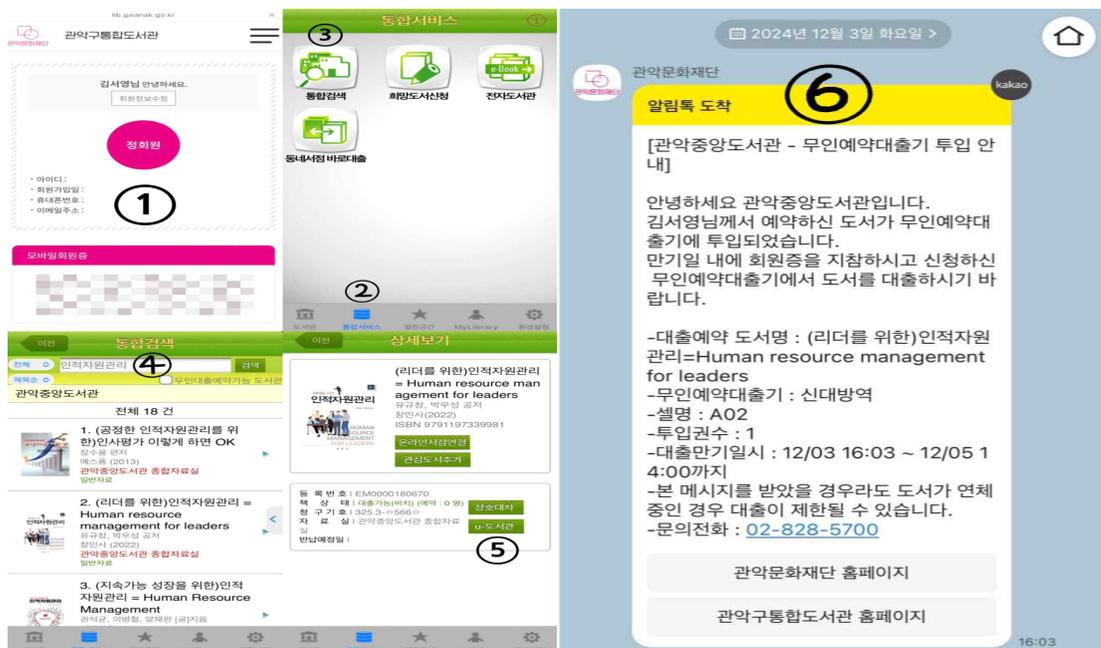
형광펜을 활용할 때는 크게 노란색과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문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초록색은 기출 문제에 출제된 내용에 사용하여 중요도를 구분했습니다. 포인트는 형광펜을 칠할 때, 모든 문장에 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 부분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강조하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거나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빨간색 밑줄은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추가한다면 원래라면 지나칠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밑줄을 긋는 부분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밑줄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수월하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학습할 때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구분하고 머릿속에 잘 각인시키기 위해 이러한 시각적 기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 4. u-도서관 활용하기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헛갈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재나 추가 자료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술정보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교재를 대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에는 교재를 찾는 학우들이 많아져 대출 중이거나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어 대출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의 ‘u-도서관’ 서비스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u-도서관은 지하철역의 무인대출기를 통해 도서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등 몇 개의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악구 통합도서관 회원가입 후 모바일 회원증 발급.
2. 관악구 통합도서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통합서비스→통합 검색→원하는 도서명 검색→u-도서관 클릭→수령처 선택→신청 완료.
3. 무인 예약대출기 투입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도서 수령.

이 시스템을 통해 시험 기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도서를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u-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5. 타임랩스 촬영으로 집중력 높이기



◁림 6> 타임랩스 촬영

공부할 때 핸드폰으로 타임랩스를 켜서 본인을 촬영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타임랩스를 켜면 핸드폰을 사용해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고 중간에 메시지 알람이나 게임 알람 등 유혹적인 요소들이 보여도 그동안 찍은 타임랩스 영상이 아까워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일종의 ‘자기 모니터링’처럼 작용해 공부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난 후에 타임랩스를 보게 되면 열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재밌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공부의 동기부여로 작용하면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6.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목표 설정하기

오늘의 학습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설정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매일의 학습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 외에도 5개에서 7개의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각 과목의 학습 진행 과정과 시험 일정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오전에 소비자행동 6, 7, 8장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러시아어입문을 일정 부분까지 학습하는 식으로 하루 목표를 나누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림 7> 체크리스트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학습을 진행한다면 목표 없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생각나는 과목대로 학습할 때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과목에만 집중하거나 다른 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루하루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중요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나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7. 나의 노력과 시간 믿기

학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에서 A+을 받겠다’ 라는 목표를 향한 나의 노력과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가 많았지만 그 부담에서 벗어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얼마나 믿고 집중하느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과목에서 A+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을 때 잠을 줄여가며 그 시간에 진심을 담았고, 결국 그 모든 노력은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쌓아온 노력과 과정이 깊은 울림이 되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 결론

학기별성적

[ 4 ] ※ 해당 석차는 장학석차와 다를 수 있으며, 장학금 관련 석차는 학생복지팀에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석차는 성적정정, 재수강 취득/삭제, 학점포기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함.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백분율	석차
1	2024	2학기	22	22	99.00	4.50	100.00	1/82
2	2024	1학기	18	20	81.00	4.50	100.00	2/91

### 장학금 수혜 확인서

대 학 : 경영경제대학	학과/전공 : 경영 학부			
성 명 : 김서영	학 번 : 2023			
학 령 : 재학	생년월일 :			
학년도/학기	학년	장학금명	금액(원)	비고
2024/2	2	학과차지	2,356,200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년07월24일

상명대학교 

<그림 8> 전체 성적 조회와 1학기 장학금수혜확인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좋은 성적을 목표로 삼는 것을 넘어 학습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오래된 학습법인 입으로 말하며 외우는 것부터 필기 전략과 시각적 도구의 활용, 그리고 타임랩스 촬영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목표 설정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저와 비슷한 학습 과정을 겪고 있는 학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 오름피날레를 위한 학기별 추천 활동!

영어교육과 21학번 이현승

### 기획 의도

오름피날레는 상명대학교에서의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학생회, 비교과 활동, 대외 활동, 학술 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선정을 통해서 수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오름피날레에 선정되려면 학년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학교 생활 꿀팁을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1~2학년 후배들이 이 영상을 로드맵 삼아 학교 생활 적응과 대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본 지면에 실린 부분은 동영상 제출작의 주요 편집본이며, 원본 전체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A+와 SQLD 자격증 달성기

컴퓨터과학전공 22학번 지재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전공과목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면서, SQL 개발자(SQLD) 자격증을 취득한 컴퓨터과학전공 지재현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저는 전공 수업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자 했습니다.

IT 분야에서 자격증은 단순한 스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전공자들에게는 실력 증빙의 수단이 되고, 전공자들에게는 공기업 취업과 같은 특정 진로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더 나아가 일부 자격증은 진급이나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자격 요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IT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이지만, 전공자의 경우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졸업 후 정보처리기사 취득이라는 큰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SQLD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SQLD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보처리기사의 한 영역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업과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 개념들은 SQLD 시험의 기반이 되었고, SQLD 준비 과정에서 익힌 실무적 지식은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제가 전공 수업과 SQLD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립한 체계적인 학습 전략과,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정보처리기사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SQLD 학습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SQLD 시험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학습 교재 선택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습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상명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알라딘과 같은 도서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여러 옵션 중에서, 시험 준비에 적합한 교재를 비교한 뒤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한 교재는 ‘2025 SQLD 모든 것 : SQLD 14일 합격’ 과 ‘(이기적) SQL 개발자 : 기출문제 500제’ 입니다.

전공 수업의 데이터베이스 커리큘럼과 SQLD 시험 범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ER 모델과 정규화 과정, SQL 기본 문법과 활용 부분이 많이 겹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같은 과 동기 중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학생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주 2회 대면으로 만나 정해진 챕터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가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SQL 문법과 관련된 실습 문제를 풀 때는 각자 작성한 쿼리를 비교하며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토론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진도와 SQLD 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주차별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SQL 개요’ 와 ‘데이터 정의어’ 부분을 배우는 5-6주차에는 SQLD 교재의 ‘Chapter 3 SQL 기본’ 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SQL 기본 문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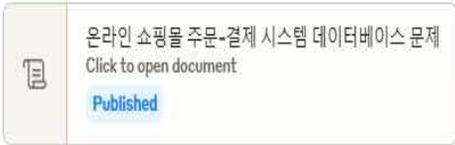
개인 학습 시간은 평일 저녁 2시간, 2회로 고정하여 규칙적인 학습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수업 내용 복습과 기본 개념 학습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SQLD 기출문제 풀이와 오답 분석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 범위와 SQLD 시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나눈 의견과 토론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시험 준비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플랫폼으로 노션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둘이서도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개념을 SQLD 학습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배운 ‘관계 대수’의 개념을 SQLD의 ‘SQL 기본’ 파트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관계 대수의 선택(Selection)과 투영(Projection) 연산을 이해하고 있으니, SQL의 WHERE절과 SELECT절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챗 GPT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I를 학습에 접목했습니다:

**S** SQL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시나리오 "온라인 쇼핑물의 주문-결제 시스템"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만들어줄래?  
PDF파일로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어!

온라인 쇼핑물의 주문-결제 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물 주문-결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문제

**시나리오 설명**  
당신은 대형 온라인 쇼핑물 'ShoppingKing'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쇼핑물은 일일 평균 1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테이블 구조
-- 회원 정보 테이블
CREATE TABLE MEMBERS (
  MEMBER_ID VARCHAR(20) PRIMARY KEY,
  NAME VARCHAR(50) NOT NULL,
  EMAIL VARCHAR(100) UNIQUE NOT NULL,
  PHONE VARCHAR(20) NOT NULL,
  JOIN_DATE DATE DEFAULT CURRENT_DATE,
  MEMBER_GRADE VARCHAR(10) CHECK (MEMBER_GRADE IN ('BRONZE', 'SILVER', 'GOLD', 'PLATINUM'));
);

-- 상품 정보 테이블
CREATE TABLE PRODUCTS (
  PRODUCT_ID VARCHAR(20) PRIMARY KEY,
  PRODUCT_NAME VARCHAR(100) NOT NULL,
  PRICE NUMBER(10) NOT NULL,
  STOCK_QUANTITY NUMBER(5) NOT NULL,
  CATEGORY_ID VARCHAR(10) REFERENCES CATEGORIES(CATEGORY_ID),
  REG_DATE DATE DEFAULT CURRENT_DATE
);

-- 카테고리 테이블
CREATE TABLE CATEGORIES (
  CATEGORY_ID VARCHAR(10) PRIMARY KEY,
  CATEGORY_NAME VARCHAR(50) NOT NULL,
  PARENT_CATEGORY_ID VARCHAR(10) REFERENCES CATEGORIES(CATEGORY_ID)
);

-- 주문 테이블
CREATE TABLE ORDERS (
  ORDER_ID VARCHAR(20) PRIMARY KEY,
  MEMBER_ID VARCHAR(20) REFERENCES MEMBERS(MEMBER_ID),
  ORDER_DATE TIMESTAMP DEFAULT CURRENT_TIMESTAMP,
  TOTAL_AMOUNT NUMBER(10) NOT NULL,
  ORDER_STATUS VARCHAR(20) CHECK (ORDER_STATUS IN ('PENDING', 'PAID', 'SHIPPED', 'DELIVERED', 'CANCELLED'));
);

-- 주문 상세 테이블
```

첫째,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를 생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물의 주문-결제 시스템“ 같은 실제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어진 SQL 쿼리의 주요 최적화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관 서브쿼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별 작년 주문 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상관 서브쿼리는 각 고객별로 실행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CTE(Common Table Expression)로 변경하여 작년 주문 데이터를 한번에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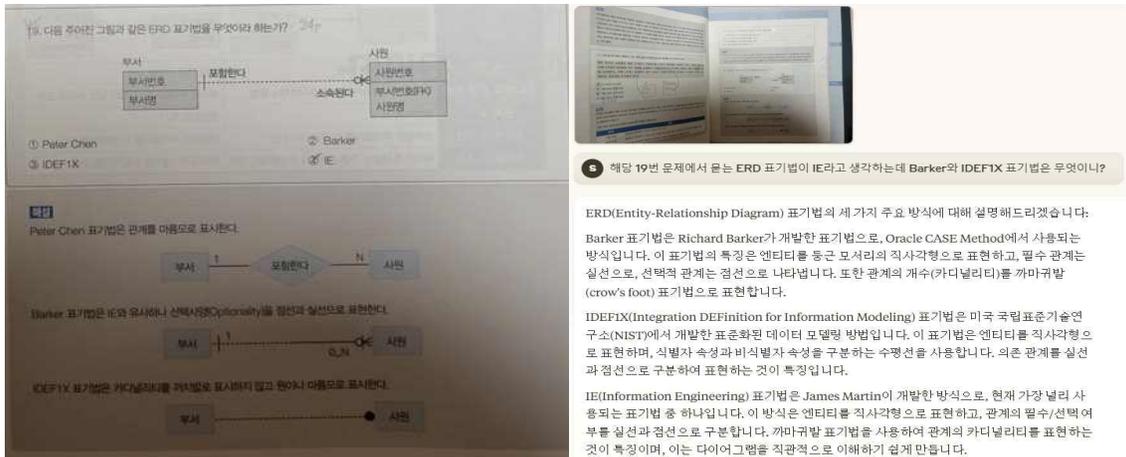
둘째, 제품 카테고리 관련 중첩 서브쿼리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된 중첩 서브쿼리를 직접 JOIN으로 변경하면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가 더 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필터링 위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WHERE 절의 조건들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적용하여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문 상태와 날짜 필터링을 먼저 수행하면 좋습니다.

넷째, 적절한 인덱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orders 테이블의 order\_date와 status 컬럼, products 테이블의 category\_id와 is\_active 컬럼, 그리고 order\_items 테이블의 order\_id와 product\_id 컬럼에 대한 복합 인덱스 생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OUP BY 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쿼리에서는 여러 단계의 집계 발생하고 있는데, CTE를 활용하여 중간 집계 결과를 재사용하면 전체적인 쿼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SQL 쿼리의 최적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쿼리를 챗 GPT에 보여주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면, 인덱스 활용이나 조인 순서 최적화 같은 실용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오답 분석에 AI를 활용했습니다. 틀린 문제의 정답과 제가 선택한 답을 함께 제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놓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주어 효과적인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과 SQLD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는 초기 과정은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커리큘럼의 학습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긴 했지만, 각각의 학습 순서와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SQLD에서는 실무 중심의 SQL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전공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 개념과 원리를 더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두 영역을 조화롭게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초반의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제 학습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두 영역을 오가며 고군분투했던 학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SQLD 준비 과정에서 익힌 실무적 관점이 전공 수업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반대로 수업에서 배운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이 SQLD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종목 및 등급 : SQL 개발자  
 자격 번호 :  
 성 명 : 이재현  
 생 년 월 일 :  
 합격 일자 :  
 유효 기간 :

2024년 12월 20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전체 성적내역

(평점평균인원인상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학분율	
전공평점평균	

학기별 성적

No	학년도	학기	산정학점	취득학점
1	2024	2학기	20	20
2	2024	1학기	20	20
3	2022	2학기	20	20
4	2022	1학기	18	19

학기별 성적 상세

No	학수번호	교과명	미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HALF9438	인간과시간	교과	2	7.00	B+
2	HAEAD002	컴퓨터구조	1전선	3	13.50	A+
3	HAEAD003	시스템소프트웨어	1전선	3	13.50	A+
4	HAEAD010	알고리즘	1전선	3	13.50	A+
5	HAEAR227	정보보호	1전선	3	13.50	A+
6	HAEZ000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1전선	3	13.50	A+
7	HAEZ0004	데이터베이스	1전선	3	13.50	A+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A+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SQLD 자격증 취득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말고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연결 지어 설명하는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전공 학습과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며 얻은 통합적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 받은 동료들의 피드백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조인(Join) 문제를 해결할 때,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실제 SQLD 시험에서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전공 수업과 SQLD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면서, 저는 체계적인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의 이론적 기반과 SQLD의 실무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이루었고, 이는 제 학습 성과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과 학우들과 함께한 스터디 활동은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관점과 해결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SQLD 자격증 취득은 제 IT 전문성 향상의 첫 걸음이었으며, 이제 정보처리기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반드시 합격하여, IT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SQLD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았기에, 이를 발판으로 정보처리기사의 다른 영역들도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SQLD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공 수업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적 개념들이 SQLD 학습의 토대가 되며, 반대로 SQLD 준비 과정에서 익히는 실무적 지식이 전공 수업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학습하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SQL 문제 풀이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은 학습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학습 리듬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챗 GPT와 같은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단순히 답안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닌, 다양한 학습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깊이 있는 개념 이해를 돕는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답 분석 과정에서 AI의 상세한 설명은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을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닌,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SQLD 학습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향후 정보처리기사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IT 분야의 핵심 기술이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저는 체계적인 학습 전략과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SQLD 취득이라는 첫 성공을 발판으로, 정보처리기사 합격이라는 다음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학교생활 200%로 즐기고, 상까지 받는 방법

한일문화콘텐츠전공 22학번 양성민

### 기획 의도

상명대학교에서 재학하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특히, 2024학년에 복학을 하며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프로그램도 많이 신청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상명 프레젠테이션 대회와 비평적 에세이 경진 대회, 신입생 환영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학우분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 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본 지면에 실린 부분은 동영상 제출작의 주요 편집본이며, 원본 전체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장려상

4년의 망설임을 넘어, 성장의 기회를 잡다.

영어교육과 21학번 남정민



처음 HUSS 사회구조 컨소시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11월 23일 토요일에 대전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세상을 바꾸는 100인의 체인지 메이커” 해커톤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지만,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과 대회가 있으면 선뜻 자신있게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기여한 노력에 비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참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4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참가해본 대회가 바로 대전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해커톤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해커톤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른 팀들에게 저희 팀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이 피드백을 적용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 도출부터 이 아이디어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까지 발표하느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아쉽게도 4등을 하는 바람에 입상하지 못하여 큰 아쉬움을 남겼던 첫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커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했을 때만 나오는 열정과 도파민은 처음 느끼는 새롭고 짜릿했던 자극이었기에 다음 대회에서는 꼭 입상을 하고 말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때마침 HUSS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한일문화콘텐츠 전공에서 주관하는 “2024 상생 공모전”의 공지를 보고, 예선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 콘텐츠 기획 / 홈페이지 기획 분야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난 해커톤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과의 상생을 위해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 메모 >**  
2024년 11월 13일 오후 8:05

**<문제점이 있는 정책 고집어서 해결방안 도출하기>**  
사서교육 확충?  
노인의지개선  
키오스크교육 홍보 및 참여 확대

**<주제>**  
노인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정책 문제와 개선 방안 제한

**<도입, 본문>**  
문정 - 정서론 - 사서는 모든걸 다 안다라는 오해 but 사서 업무 비중이 높아지며 노인들의 정보 요구를 다 해결 못해줌 / 노인들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주제에 맞추어 찾을 수 있어야 함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문제점이 있는 정책 최대한 많이 찾기 기사나 사례, 뉴스기사, 논문자료, 영상 등>**

**<문제점이 있는 정책 고집어서 해결방안 도출하기>**  
사서교육 확충?  
노인의지개선  
키오스크교육 홍보 및 참여 확대

**<결론>**  
디지털 사회와 노인의 상생 정책 제안서 시청에 제출

**앞으로 해야할 일**

현재 노인 이용자 대상 도서관 정책찾기  
현정책의 문제점 고집어서 해결책 찾기  
정책 제안서 작성  
피피티 발표

목물까지 논문 pdf 50 ~ 100 page의 현재 문제있는 정책 찾아오기  
토물까지 정책 및 해결책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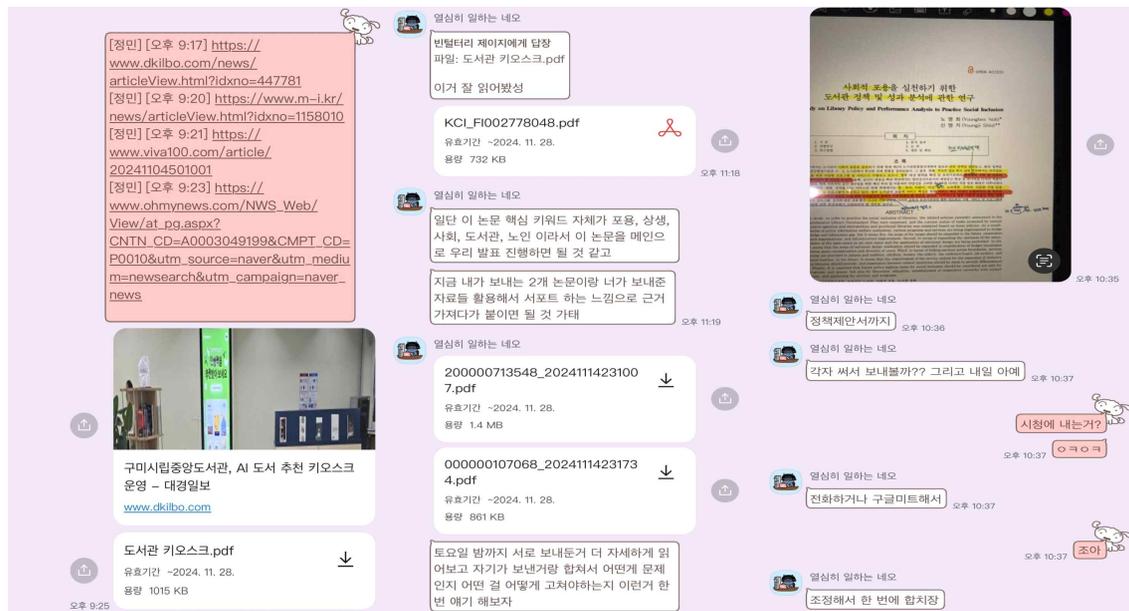


사실, 이 대회는 11월 21일까지 상생 아이디어 기획안 온라인 제출이 예선 심사였는데, 참가자가 저조한 관계로 모든 팀이 바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해커톤에 다녀온 직후였기 때문에 이 본선 발표에서는 꼭 입상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그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저희는 본전공은 영어교육과이지만,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옥남 교수님의 “정보서비스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노인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사서는 노인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해결해 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장서 정리 등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문제를 설정하여 노인 이용자가 도서관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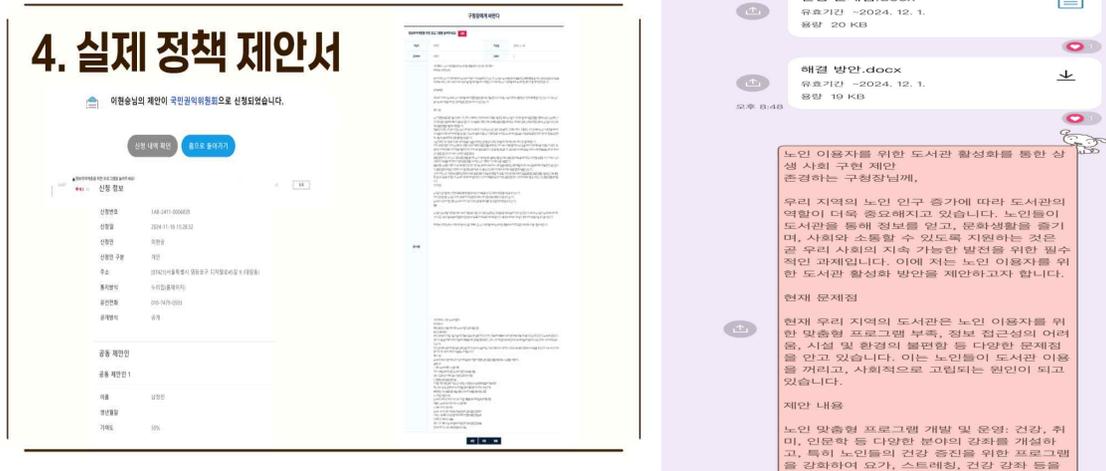
또한, 2017년까지는 고령화 사회였으나, 2018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8%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노인이 경제활동 은퇴 이후,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실제로 도서관 시스템은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노인 이용자가 잘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홈페이지 위주의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및 대출 반납 시 무인 도서관 키오스크 운영 등의 상황을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이 및 지역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이용자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의 정책을 다룬 논문과 기사들을 읽고, 11월 16일(토요일 밤)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과 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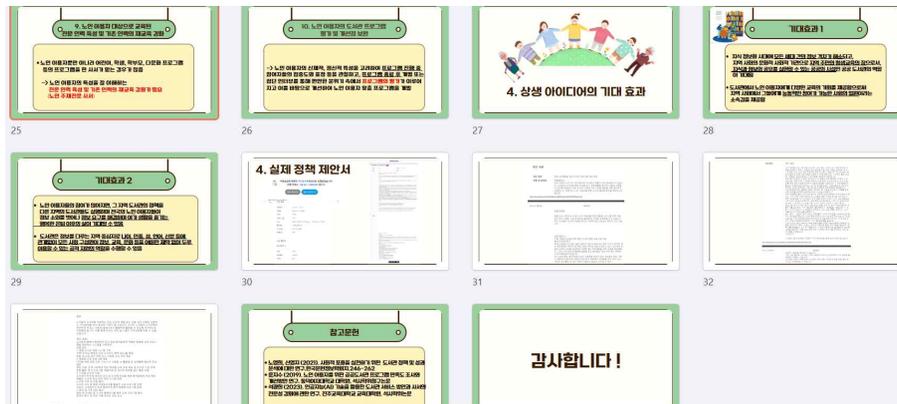
16일 밤 구글 미트 비대면 화상통화를 통해 이번 상생 아이디어에 활용할 최종적인 논문과 자료들을 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책을 보완하면서 노인 이용자가 도서관

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지역 사회의 도서관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 했습니다.



계획표의 일정에 따라 11월 17일에는 도출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상생 아이디어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국민 권익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1월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35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노인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활발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도출했습니다.

12월 4일 밀레니엄관에서 진행되는 상생 공모전 본선 발표를 앞두고, 예선 없이 바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동시에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발표 시간 7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준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35장이나 되어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은 학교 스터디룸을 빌려 집중적인 발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실제 발표 상황을 가정하여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상생 아이디어는 노인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에 앞서 작은 역할극을 준비했습니다. 계단이 많아 노인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의 물리적인 환경과,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할머니를 연기하는 역할극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이용자를 위해 상생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발표 초반부터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5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7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 슬라이드의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연습하여 발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타이머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했으며, 여러 번 발표 영상을 촬영하여 말의 빠르기나 표정을 중점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거쳐 12월 4일 시행했던 본 발표에서는 실수 없이 준비한 역량을 모두 발휘하였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이라는 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저에게 이 상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이후 제 삶에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약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끓어 오르는 열정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나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우분들이 많으실텐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충분히 많은데 과연 대회 준비까지 하면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찌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늘 대회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특히,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해커톤에서 아쉽게 4등을 하는 바람에 입상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상생 공모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며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종, 세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구조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다소 폭넓고 생소한 주제와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막대한 양의 자료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주제의 폭을 줄이고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파고들어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혼자 참여한 것이 아닌 팀원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며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와 공모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주제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고,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목표와 기한을 정했습니다. 메모장에 도입, 본론, 결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료 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카카오 톡 앱의 '톡 캘린더' 기능을 활용하여 각 팀원의 스케줄을 공유하고, 중요한 일정을 알림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한 대회에서 처음 입상하여 얻은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은 성장이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넓고 깊은 주제에 대한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팀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고,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하며, 제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4년간 망설였던 과거의 저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커톤이라는 첫 대회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용기를 바탕으로 상생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자,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역사콘텐츠전공 23학번 안유진

### 1. 무기력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대학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각종 외부 공모전과 교내 프로그램에 열심히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외부 공모전에서는 예선을 통과하였지만 본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고 그토록 원했던 교내 해외 프로그램에도 선발되지 못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전공도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휴학까지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2학기가 되었고 1학년 때 타학과 전공인정 교과목으로 공간환경학부 과목을 수강하였던 경험을 떠올려 해당 학과 전공과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 교과목들을 6학점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문사회융합인재(HUSS) 교과목들은 이번 학기 새롭게 개설되어 과목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였고 집중이수제로 진행되었기에 저에게는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였기에 해당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고 공간환경학부 전공과목들도 저에게 잘 맞았기에 이번 학기 학점 4.5로 학과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 학기를 이수하였는데 그 결과 계속해서 성적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학 때마다 틈틈이 자격증도 취득하였는데 지금부터 이번 학기 공부법과 자격증 취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점계	평점평균	백분율	석차
81.00	4.50	100.00	1/28
78.50	4.36	97.60	5/30
78.00	4.10	95.00	7/41

◁ 그림 1 > 성적 상승 현황

## 2. 효과적인 공부 습관

### 1) 전공: 꾸준한 연습과 예상문제 정복하기

전공 같은 경우, 복습보다는 연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습이 효과가 좋지만 전공은 하루에 나가는 내용이 많았기에 수업 때 교안을 처음 보는 것보다는 연습함으로써 무엇을 배울지 미리 숙지하고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휴일로 인해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교안을 꼼꼼히 읽어본 후,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평소에 2중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전체 범위를 2회독 정도 하였는데 이때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만을 최대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ppt 교안을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씩 공부하면 흐름이 끊기고 몇 일 전에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2~3일 만에 1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바로 직전에는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이번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와 답안들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강의 자료를 보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제가 지금 떠오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문제 20개 정도를 답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문제와 겹치는 시험 문제들이 꽤 있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최고점을 받아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성현을 활용한 관악구 장소매개변의 의미와 관계

도시 공간에 대한 의미와 활동은 상상력을 위한 것

1. 학생의 활동 계획서

2. 장소매개변의 개념과 관악구의 의미

3. 도시 공간에 대한 의미와 활동은 상상력을 위한 것

◁ 그림 2 > 전공 과제물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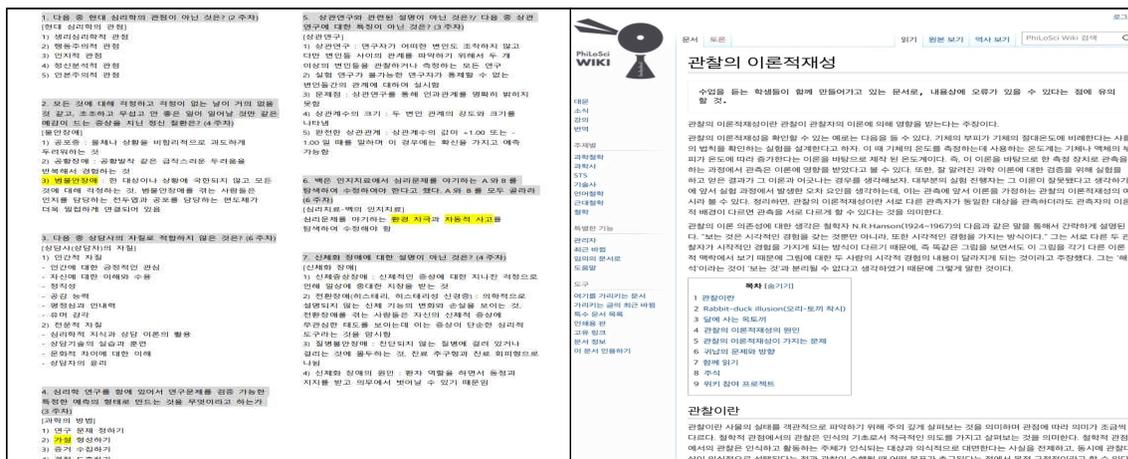
◁ 그림 3 > 전공 공부 필기본

## 2) 교양: 기출문제 탐색과 보충학습하기

교양 같은 경우, <현대사회와 심리학>과 <과학의 철학적 이해>를 수강하였고 HUSS 교과목 6학점을 수강하였는데 과목마다 공부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우선 현대사회와 심리학은 교안을 읽고 난 후, ppt 위에 핵심 내용만을 마인드맵으로 필기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샘플 포털에서 최소 3개년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하여 예상 문제를 선별했습니다. 강의명이 바뀌기 전의 기출문제도 수집하여 컴퓨터로 문항과 함께 관련 개념 및 정답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중간고사에서는 만점, 기말고사에서는 1개만 틀려서 가뿐히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의 철학적 이해는 ‘과학철학’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과목인데 평소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던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 대학교 철학과에서 만든 과학철학 백과사전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철학 관련 책을 구매해 사상이별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학습하였으며 과학 관련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EBS 지구과학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교과목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USS 교과목 같은 경우, 집중이수제로 진행되었기에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한 주차에 3주 분량을 수강하기로 하였고 토요일에 한 과목, 일요일에 나머지 과목을 수강하면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행과 치유: 여행으로 행복해지기>를 수강하면서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강의 교안에 “내가 자전거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 나를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껏 높은 학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조금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목표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감사하게도 4.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등을 하였지만 공간환경학부로 전과를 신청하였기에 수석 장학금은 받지 못하지만, HUSS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힐링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 4> 교양 기출문제 정리본

<그림 5> 참고한 과학철학 백과사전

### 3. 꿈을 향한 자격증 취득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과하기 전의 학과에서는 입학 후에 취득한 한능검 1급이 졸업 요건이었기에 작년 2월에 해당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미 한능검 1급을 고등학교 때 취득한 경험이 있었기에 작년 시험은 기출문제 오답 노트만으로도 쉽게 붙을 수 있었으나 처음 취득할 때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시험 같습니다. 대부분 한능검은 2주 만에 합격한다는 글을 믿고 고1 때 저도 2주를 잡고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였으나 1점 차이로 떨어진 후 교과서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전문 교재를 구매한 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1주일 정도를 더 공부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터넷 강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자신이 스스로 교재를 보며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전 1급을 취득하였고, 작년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틀린 내용은 꼼꼼히 정리하면서 공부한 결과 하루 만에 점수가 20점 올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인증서

#### 2) 공인영어시험 G-TELP

저는 수능과 내신 모두 영어점수가 높지 않았기에 영어에 매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듣는 기초영어 교과목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23학년부터 토익 70점 또는 지텔프 74점, 기타 영어점수로 기초영어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토익이 매우 큰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미루던 중,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지텔프 74점 이상을 맞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토익이 상대평가에 200문제라면 지텔프는 절대평가에 80문제였기에 항상 시간이 부족했던 저는 지텔프는 열심히 공부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텔프는 문법/청취/독해 및 어휘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평균 점수가 곧 최종점수입니다. 참고로 문법이 가장 수월하고 청취 같은 경우 수능이나 다른 시험과 달리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아 노트테이킹을 해야 해서 어려운 편입니다. 독해 및 어휘는 수능 독해 문제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100점을 맞아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음 4일 동안은 유튜브 지텔프 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아이패드로 정리본을 만들었고 나머지 7일 동안은 7회분 기출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 결과 문법 100점을 받아 세 영역 평균 딱 74점을 받을 수 있었고 졸업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TELP 정기시험 성적확인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하세요)

등급	점수(%)	문법	청취	독해/어휘
2	74	100	50	71

**가정법**

- 동작 완료 후 4문제(문법, 가정법 과거 3문제+가정법 과거진형 2문제)
- 가정법 동태 틀어 번역

선택지 가 둘이 있으면 **YES**

빈칸에 속해있는 문장에 **is/are** 주어 PP 존재  
→ 주어  
→ 주어  
→ 주어

가정법 POINT 지름 가정법 또는 should 정말 POINT 지름

■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진형)

- 가정법 과거 : **was/were** (인칭 ~했다던, ~일(했다))
- 정말 + 주어 + **if** 조건부, 주어 + **would/could** + 동사원형

예) I studied hard, I would have done better.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f I had studied hard.

■ 가정법 과거진형 : **had done** (인칭 ~했다던, ~일(했다))

정말 + 주어 + **had done**, 주어 + **would/could** + have PP

예) I had studied hard,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f I had studied hard.

■ 조건부문자

- if/and + 주어 + PP ~: 가정법 과거진형
- if/and + 주어 + would/could + have PP + 주어
- 조건부 문장(조건부) 중에는 **had**의 주어를 바꿔 씀(54%)

예) If I had studied hard,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f I had studied hard.

- 조건부문자 + **had done** + 주어 ~: 가정법 과거
- 정말 + 주어 + **had done**

should나 would POINT 지름 : 동사원형에 답

- 학습 전 알아야 할 필수 문법
- should : ~해야 한다
- should + 동사원형
- 어제 "should"는 생각하지도 않
- 능동 : ~했다"로 해석됨 (형태 : do 동사 + PP)
- 수동 : ~되었다, 당황하다"로 해석됨 (형태 : do 동사 + PP)
-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동사의 수동과 수동형 명칭하는 것 : 주어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 should나 would, 동사원형

- 수동형의 명칭과 관련된 동사, 형용사 : **have** 전에 동사원형
-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 조건부문자

- 정말 + 주어 + would/could + 동사원형이 온 다 순서는 항상 : 동사원형에 답
-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f I had studied hard.
-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if I had studied hard.

■ 동사의 수동과 수동형 명칭하는 것 : 주어/수동 구별

- 예) I should have done better.
- 예)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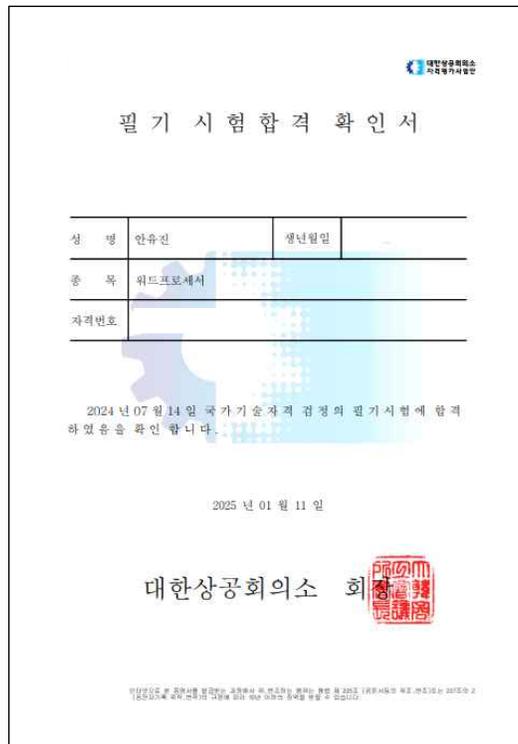
◁림 7> 공인영어시험 G-TELP 성적표

◁림 8> G-TELP 문법 필기본

### 3)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 같은 경우, 작년 여름방학 때 필기에 합격하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실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워드프로세서는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실기에 합격해야 하며 컴퓨터활용능력과 달리 단일등급 체제입니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서는 워드프로세서를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곳도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쪽을 생각하는 저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 전문 교재로 3일 동안 공부하였는데 용어와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무작정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은행 형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계속 나오므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필기와 달리 실기는 제한 시간 내 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오랜 기간을 잡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취득한 후에는 공간환경학부 졸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고 기회가 된다면 컴퓨터활용능력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117



<그림 9> 워드프로세서 필기합격 확인서

## 4. 오늘도 도전하는 삶

저는 현재 구청에서 행정업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입학한 후 빠짐없이 지원하였지만 매번 추천에서 떨어진 후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 선발되지 못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는데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계속 도전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처음 4.5를 받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입니다.

SANGMYUNG UNIVERSITY



2024학년도 2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교수학습혁신센터  
(구: 교수학습개발센터)

